문학주간2022
백서

문학의 이름 아래, 서로를 높이는 다정한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I. 사업 개요

1. 문학주간 2022 개요 06
2. 추진 체계 08
3. 프로그램 결과 10

II. 프로그램

1. 개막식 16
2. 기획프로그램 18
3. 공모프로그램 56
4. 협력프로그램 86

III. 결과 및 제언

1. 만족도 조사 100
2. 평가 및 제언 106
3. 참여자 후기 112

IV. 부록

1. 홍보 116

문학주간2022 둘,사이



Ⅰ. 사업 개요

1. 문학주간 2022 개요
   - 1-1. 사업 목적
   - 1-2. 행사 개요
   - 1-3. 기획 의도
2. 추진 체계
   - 2-1. 추진체계도
   - 2-2. 운영위원회
3. 프로그램 결과
   - 3-1. 프로그램 구성
   - 3-2. 프로그램 일정 및 실적

1. 문학주간 2022 개요

1-1 사업목적

- 전국 규모 국민 참여형 연례 문학축제 개최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문학 진흥 붐 조성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학 관련 단체 및 문학인들의 활동 지원 확대
- 문학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1-2 행사개요

행 사 명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주 제	둘, 사이
기 간	2022년 11월 7일(월) - 11월 11일(금) 5일간
진행장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공공그라운드(파랑새극장, 001스테이지),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그 외 전국 단위
사업내용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학계, 예술계, 독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 개막토크, 낭독극, 작가대담, 토크, 문학주간 사진전 등
주 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그라운드, 삼다수, 트레비어
협 력	(사)국제PEN한국본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민음사, 은행나무, 창비
프로그램 수	46건
참여 작가 수	총 141명
참여 관객 수	총 11,065명 (장소 지정형 1,175명, 장소 전국형 232명, 전시관람 9,658명)
언론홍보	44건
온·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총 93건, 오프라인 홍보 총 45건

1-3 기획의도

사람의 모든 일은 사이에서 비롯합니다. 몸과 몸. 정신과 마음. 물질과 관념. 나와 타자. 차이와 일체.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관계가 있고 사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그 자체일 사이와 사이의 문제를 사람은 환대의 형식으로, 혹은 싸움의 형식으로 풀어내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문학은 이와 같은 사이의 삶을 감각과 사건, 감정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무방하고 아름다운 노력이 됩니다. 그러한 애씀은 쓰기와 읽기를 구심점 삼아 번져나갑니다. 점점 더, 서로에게 닿을 때까지. 마침내 도착한 사이는 처음과 같아 보이지만 다른 무엇이며, 그 변화는 가능과 불가능 사이 어디쯤에 놓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2년 문학 주간의 주제를 '둘, 사이'로 제안합니다. '둘'은 낱낱을 연결하고, '사이'는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묶인 '둘, 사이'는 때로는 반대편에서 때로는 같은 편에서 치열하게 대응하며 오늘날 문학의 의의를 되새길 것입니다.

어떤 '둘, 사이'는 토론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둘, 사이'는 공연의 형태, 전시의 방식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어떤 '둘, 사이'는 뜻밖일 것이며, 어떤 '둘, 사이'는 익숙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문학의 이름 아래, 서로를 높이는 다정한 '둘, 사이'가 될 것을 바랍니다. 문학이 형성해가는 관계와 관계가 도출하려는 의미가 곧, 우리 문학의 미래입니다.

2. 추진 체계

2-1 추진체계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위원회
문학 분야 현장 예술인

운영 및 홍보대행 사업자
(사)와우컬처랩

협력기관

주요 문학단체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주요 출판사
((주)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민음사, 은행나무, 창비)

후원
(공공그라운드, 삼다수, 트레비어)

2-2 운영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비고
1	이시백	소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비상임위원	유관기관 및 단체
2	김경식	국제PEN한국본부 사무총장	
3	표중식	한국문인협회 사무총장	
4	전보삼	한국문학관협회 회장	
5	김남혁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상임이사	
6	김성달	한국소설가협회 상임이사	
7	김재홍	한국시인협회 사무총장	
8	박관서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9	송시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창작본부장	
10	김미월	소설가	실무협의회 (6인)
11	백다흠	출판인	
12	유희경	시인	
13	윤미현	극작가	
14	허희	문학평론가	
15	이현진	(사)와우컬처랩(운영사)	



3. 프로그램 결과

3-1
프로그램 구성

개 막 식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개막 1.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2. 개막선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3. 축하인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위원 이시백 4. 문학주간 2022 프로그램 소개 5. 개막토크 : 오은 시인, 정지아 소설가
문학주간 스테이지	전시 • 문학주간2022 사진전 - 둘 사이, 작가의 얼굴들 기획프로그램 • 문학주간2022 사진전 - 둘 사이, 작가의 얼굴들 • 작가와 독자 사이 • 시인과 시인 사이 • 텍스트와 낭독 사이 • 한강 낭독극 <흰빛> •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 • 인간과 기술변화, 둘 사이의 문학 •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쓰기란 무엇인가? • AI와 함께 시 조각하기(Carving poetry with AI) •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하기(Cuttage Novel) • 낭독회 <수용> •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 • 안녕, 미워 죽겠는 나의 유령 친구 : 김수영과 박인환 • 한 걸음 더 시의 대화 • 시와 독자: 어둠 속의 시 • 한국문학과 해외문학, 둘 사이의 번역가 • 문학주간2022 뒷 이야기 • 노래서점 • 제주와 작가 사이 • 폐막공연 : <만선> 낭독극
문학주간 스테이지	공모-장소 지정형 • 우연과 필연 42(사이) •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 괄호 채우기 낭독회 : ( )와 ( ) 사이 • 강독과 낭독 사이 : 관계의 가능성 • 사물의 생애사 • 애도하는 시 • 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 <문BTI> 상담 토크쇼 공모-장소 전국형 • 고양이와 나 사이에서 • 본격 부동산 문학 토크 : 갭과 갭 사이 • 숨과 쉼 사이 문학이 스며들 때 • 거북이와 플라스틱 • 만지詩오 : 촉각 낭독회 • 함께 놀당갑서양!(함께 놀다 가세요) • 글 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 • 문학에 깃든: 공존과 연대 - 갈등을 넘어 평화로! • 소설가와 소방관의 만남 • 인문산책 : 다시 읽다가, 잇다가 • 식탁에서 쓰는 편지 - 소설과 현실 사이, 당신의 안부를 묻다 • 여자 셋이 모여 • 관계·사랑·성 글쓰기
2022년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나의 첫 책 프로젝트> 도서전시 및 북토크
협력 프로그램	202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 <문장의 소리 in 문학주간>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 공개방송 • November 8 Prism: 8인 작가들이 낭독하는 8개의 빛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작가는 처음이지?": 작가 - 저작권 '둘 사이' •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작가는 처음이지?": 출판사 - 저작권 '둘 사이' ㈜문학과지성사 • 『시 보다』로 떠나는 詩間여행: 일곱 시인이 보여주는 한국 시의 빛나는 현재와 미래 한국문학평론가협회 • 비인간과 문학예술

3. 프로그램 결과

3-2
프로그램 일정 및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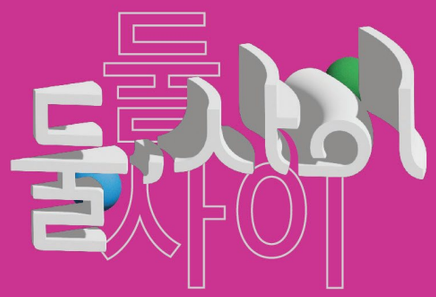
문학주간 스테이지
대학로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관객 수
11월 7일 (월)	16:00	문학주간 2020 개막식 둘, 사이	파랑새극장	42
	12:00	[공모] 우연과 필연 42(사이)	001스테이지	18
	14:30	[협력] <문장의 소리 in 문학주간>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 공개방송	001스테이지	11
	19:00	낭독극 <흰빛> : 소설『흰』과 즉흥피아노의 만남	파랑새극장	70
11월 8일 (화)	12:00	작가와 독자 사이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22
	14:00	[협력] November 8 Prism : 8인 작가들이 낭독하는 8개의 빛	파랑새극장	20
	14:00	[공모]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001스테이지	25
	16:00	[공모] 괄호 채우기 낭독회 : ( )와 ( ) 사이	파랑새극장	17
	19:00	텍스트와 낭독 사이	파랑새극장	66
11월 9일 (수)	12:00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8
	14:00	인간과 기술변화, 둘 사이의 문학	파랑새극장	11
	14:00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쓰기란 무엇인가?	001스테이지	28
	14:00	[협력]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작가는 처음이지?" : 작가 - 저작권 '둘 사이'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6
	16:00	[공모] 강독과 낭독 사이 : 관계의 가능성	파랑새극장	21
	16:00	AI와 함께 시 조각하기 (Carving poetry with AI)	001스테이지	31
	19:00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하기 (Cuttage Novel)	파랑새극장	54
11월 10일 (목)	12:00	[협력]『시 보다』로 떠나는 詩間여행 : 일곱 시인이 보여주는 한국 시의 빛나는 현재와 미래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7
	12:00	낭독회 <수용>	파랑새극장	16
	12:00	[공모] 사물의 생애사	까페 창비 (서울)	20
	14:00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	파랑새극장	25
	14:00	안녕, 미워 죽겠는 나의 유령 친구 : 김수영과 박인환	001스테이지	9
11월 10일 (목)	14:00	[협력]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작가는 처음이지?" : 출판사 - 저작권 '둘사이'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3
	16:00	한 걸음 더 시의 대화	001스테이지	13
	16:00	[공모] 애도하는 시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20
	19:00	시와 독자: 어둠 속의 시	파랑새극장	66
11월 11일 (금)	12:00	문학주간2022 뒷 이야기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15
	12:00	한국문학과 해외문학, 둘 사이의 번역가	001스테이지	12
	14:00	노래서점	파랑새극장	16
	14:00	[협력] 비인간과 문학예술	001스테이지	13
	16:00	제주와 작가 사이	001스테이지	30
	16:00	[공모] 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 <문BTI> 상담 토크쇼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14
	19:00	폐막공연 : <만선> 낭독극	파랑새극장	71
11월 7일 (월) ~ 11월 11일 (금)	-	2022년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나의 첫 책 프로젝트> 도서전시 및 북토크	갤러리 푸에스토	358

문학주간 스테이지
전국 프로그램

날짜	시간	프로그램명	장소	관객 수
11월 7일 (월)	18:30	고양이와 나 사이에서	킁킁도서관	4
11월 8일 (화)	12:00	본격 부동산 문학 토크 : 갭과 갭 사이	동네서점 공독서가	12
11월 9일 (수)	15:00	숨과 쉼 사이 문학이 스며들 때	창비부산 창작홀	18
	19:00	거북이와 플라스틱	쿠바왕	6
	19:00	만지詩오 : 촉각 낭독회	조조공방(대전)	10
11월 10일 (목)	16:00	함께 놀당갑서양!(함께 놀다 가세요)	창비부산 창작홀	23
	19:00	글 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	언제라도 여행 카페(서울)	27
	19:30	문학에 깃든 : 공존과 연대 - 갈등을 넘어 평화로!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부천)	16
11월 11일 (금)	14:00	소설가와 소방관의 만남	나주 소방서 대강당	46
	15:00	인문산책 : 다시 읽다가, 잇다가	대구하루 264 작은문학관 대구문학관	10
	19:00	식탁에서 쓰는 편지 - 소설과 현실 사이, 당신의 안부를 묻다	북텐츠	4
	19:00	여자 셋이 모여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23
	19:30	관계·사랑·성 글쓰기	신여성	33

문학주간2022 들,사이



II. 프로그램

1. 개막식
   - 1-1. 개막식 개요
   - 1-2. 개막식 구성
2. 기획프로그램
   - 2-1. 구성
   - 2-2. 추진 절차
   -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3. 공모프로그램
   - 3-1. 개요
   -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 3-3.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 3-4. 공모 프로그램 심사 총평
4. 협력프로그램
   - 4-1. 구성
   - 4-2. 세부프로그램

1. 개막식

1-1
개막식 개요

프로그램명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개막
일 시	2022. 11. 7. (월) 16:00
장 소	파랑새극장
내 용	1.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2. 개막선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3. 축하인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위원 이시백 4. 문학주간 2022 프로그램 소개 5.개막토크 : 오은 시인, 정지아 소설가
참 여 자	사전 25명 현장 17명 총 42명

1-2
개막식 구성

구분	내 용
오프닝 영상	문학주간 2022 소개 영상
개막선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위원장 개막선언 및 인사말
개막 릴레이 축하 인사말	• 축하인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위원 이시백
문학주간 프로그램 안내	• 문학주간 2022 프로그램 소개 • 개막토크 : 오은 시인, 정지아 소설가









2. 기획프로그램

2-1
구성

* 기획형 19개 프로그램 / 공모형(장소 지정) 7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출연	일정	장소	관객 수		
				사전	현장	총
우연과 필연 42(사이)	한연희(시인) 강혜빈(시인) 김은지(시인) 임지은(시인)	11.07(월) 12:00	001 스테이지	17	1	18
낭독극 <흰빛> : 소설 『흰』과 즉흥피아노의 만남	한강(소설가) 이햇빛(피아니스트)	11.07(월) 19:00	파랑새 극장	51	19	70
작가와 독자 사이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장강명(소설가)	11.08(화) 12:00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18	4	22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이민우(극작가/사회) 이노나(시인) 이자령(배우)	11.08(화) 14:00	001 스테이지	24	1	25
괄호 채우기 낭독회 : ( )와 ( ) 사이	이소연(시인) 이서하(시인) 주민현(시인) 전영규(문학평론가)	11.08(화) 16:00	파랑새 극장	13	4	17
시인과 시인 사이	조대한(문학평론가/사회) 이영광(시인) 이원(시인)	11.08(화) 16:00	001 스테이지	12	5	17
텍스트와 낭독 사이	조연주(편집자/사회) 김연수(소설가)	11.08(화) 19:00	파랑새 극장	52	14	66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	허희(문학평론가/사회) 노대원(교수) 김승범(메타미디어아 티스트)	11.09(수) 12:00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4	4	8
인간과 기술변화, 둘 사이의 문학	김병익(문학평론가) 최현미(기자)	11.09(수) 14:00	파랑새 극장	9	2	11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쓰기란 무엇인가?	오영진(연출가/사회) 임태훈(SF평론가) 후니다김(공기조각가, 메타미디어아티스트) 최승준(미디어아티스트)	11.09(수) 14:00	001 스테이지	23	5	28
강독과 낭독 사이 : 관계의 가능성	옥민아(극작가) 조승엽(음악감독) 김선기(배우) 권미나(배우)	11.09(수) 16:00	파랑새 극장	20	1	21
AI와 함께 시 조각하기 (Carving poetry with AI)	오영진(연출가/사회) 권보연(사이버텍스 트디자이너) 김언(시인)	11.09(수) 16:00	001 스테이지	29	2	31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 하기(Cuttage Novel)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오영진(연출가) 윤고은(소설가)	11.09(수) 19:00	파랑새 극장	39	15	54
낭독회 <수용>	김뉘연(시인) 강보원(시인)	11.10(목) 12:00	파랑새 극장	15	1	16
사물의 생애사	김현아(배우/사회) 최정화(소설가) 유이엽(연주자)	11.10(목) 12:00	까페 창비	0	20	20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	소유정(문학평론가) 김복희(시인)	11.10(목) 14:00	파랑새 극장	23	2	25
안녕, 미워 죽겠는 나의 유령 친구 : 김수영과 박인환	정한아(시인)	11.10(목) 14:00	001 스테이지	8	1	9
한 걸음 더 시의 대화	박소란(시인) 최지은(시인)	11.10(목) 16:00	001 스테이지	13	0	13
애도하는 시	최지인(시인) 양안다(시인) 최백규(시인)	11.10(목) 16:00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18	2	20
시와 독자 : 어둠속의 시	이성복(시인)	11.10(목) 19:00	파랑새 극장	49	17	66
한국문학과 해외문학, 둘 사이의 번역가	김현우(읻다대표/사회) 류승경(번역가) 문호영(번역가)	11.11(금) 12:00	001 스테이지	10	2	12
문학주간2022 뒷 이야기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유희경(시인) 백다흠(편집자) 김미월(소설가)	11.11(금) 12:00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1	14	15
노래서점	나실인(작곡가) 이지현(소프라노)	11.11(금) 14:00	파랑새 극장	12	4	16
제주와 작가 사이	양경언(문학평론가/사회) 최진영(소설가)	11.11(금) 16:00	001 스테이지	28	2	30
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 <문BTI> 상담 토크쇼	한소리(시인/사회) 김선오(시인) 김연덕(시인) 신이인(시인) 차유오(시인)	11.11(금) 16:00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10	4	14
폐막식 및 폐막공연 : <만선> 낭독극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이호성(배우) 이영석(배우) 천승세(원작) 윤미현(각색,연출) 진현태(조연출)	11.11(금) 19:00	파랑새 극장	48	23	71

2. 기획프로그램

2-2
추진 절차

기획프로그램

문학주간 2022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기획 프로그램 확정 → 출연 작가, 진행자 등 확정 및 섭외 → 행사 준비 및 홍보 (사전질문지 공유) → 문학주간 2022 콘텐츠 제작

공모형(장소 지정 / 장소 비지정형)

프로그램 공모 → 공모 심의위원 추천 및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회의 추진 및 프로그램 선정 → 출연 작가, 진행자 등 확정 및 섭외 → 행사 준비 및 홍보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야외 전시

구분	내 용
일정	2022. 11. 7. (월) ~ 11. 11. (금) 5일간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 전시
내용	자기 자신인 것과 자기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하여 작가는 글로 쓴다. 실상 그것의 경계는 흐릿하다. 작가의 글은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뒤섞인다. 그러기에 시와 소설의 주어는 늘 의심스럽다. 항상 넘치거나 혹은 모자라는 언어의 근원적인 한계 속에서 이것은 가설적으로 성립한다. 그럼에도 독자는 그를 좇아 시와 소설의 세계를 모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체감한다. 출구 없는 미로를 이리저리 헤매는 문학의 존재론이란 결국 우리 삶의 유비임을. 삶이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삶에 정답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작가의 글은 있을 수 없는 정답 대신에 있을 법한 물음을 던진다. 작가는 글 이외의 것으로도 질문한다. 이를테면 그의 얼굴 이미지로. 얼굴 이미지는 작가의 고유한 속성을 내포한다. 또한, 글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자기 자신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뒤섞인다. 언뜻 얼굴 이미지는 자명해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모호하다. 사진의 외적 시간은 정지되었으나 사진의 내적 시간까지 정지된 것은 아니다. 작가의 얼굴 이미지는 멈추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말을 건넨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엇이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믿는가. 이것으로 당신은 끝내 어떤 것을 지키거나, 내팽개치려 하는가. 이는 '문학 주간 사진전—둘 사이, 작가의 얼굴들'이 돌고 돌아 작가와 독자의 관계로 귀결됨을 예증한다. 이곳에 자리한 열네 명의 작가는 둘씩 짝지어져 있다. 나름대로 상호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하여 이들의 얼굴 이미지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작가는 또 다른 작가와 연결되어 둘 사이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문학 주간 사진전—둘 사이', 작가의 얼굴들을 배치하는데 구애받지 않고 저마다의 둘 사이를 빚어내기를. 그럼으로써 한국 문학의 성좌를 다시 그려낼 수 있기를. 이와 같은 바람이 작가의 얼굴 이미지와 당신 사이로 스며들기를. 오래 우리는 염원했다. - 허희(문학평론가)
사진	이성복-김혜순, 허수경-장석남, 박완서-오정희, 박상륭-정영문, 한강-임솔아, 김애란-윤이형, 배수아-황정은
작가	백다흠
작가소개	한국 문학 작가들이 '사진 찍히고 싶은 사진작가'로 손꼽는 백다흠 작가는 명지대에서 문예창작을,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하였다. 2006년 『문예중앙』의 국내문학 단행본 책임편집자로 일하던 당시 우연한 기회에 시선집에 넣을 시인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작가 사진과 인연을 맺었고, 2015년 문학잡지 『악스트』를 창간한 이후 표지 사진을 비롯하여 인터뷰 사진 등 본격적으로 작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백다흠의 사진이 특별한 것은 그가 문학 작품에 대한 깊고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를 만나기 때문이다. 작가는 그의 카메라 앞에 피사체로 서 있다기보다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그와 문학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작가가 인터뷰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대답의 마지막 한 조각이 그가 찍은 얼굴 사진에 들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 김미월(소설가)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낭독극 <흰빛> : 소설『흰』과 즉흥피아노의 만남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7일(월) 19:00 ~ 20: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한강(소설가) 이햇빛(피아니스트) 조경화(페이지 터너)
참여자 소개	**한강(소설가)** -소설을 쓰는 사람. 장편 소설『작별하지 않는다』,『흰』,『소년이 온다』,『희랍어 시간』,『바람이 분다, 가라』,『채식주의자』,『검은 사슴』, 소설집『노랑무늬영원』,『내 여자의 열매』,『여수의 사랑』, 시집『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출간했다. **이햇빛(피아니스트)** -'책방 오늘' 과 시집 서점 '위트앤시니컬'이 주최했던 낭독회에서 작가의 낭독과 동시에 연주가 이루어지는 즉흥 피아노 낭독회를 공연해왔다. 대표적으로는 2022년 초와 중순에 유희경 시인, 민구 시인과 함께한 '모월의 햇빛' 공연이 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창작가다. **조경화(페이지 터너)**
프로그램 내용	즉흥피아노와 소설 낭독의 만남 <흰빛>은 소설가 한강의 작품『흰』으로부터 비롯된다. '나'에서 '그녀'로, 그리하여 세상 '모든 흰'으로 번져나가는 한강 특유의 가만한 이야기가 흐르고 맺히는, 더러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 아득해지기도 하는 이햇빛만의 은유적 선율에 실려 흩날리게 된다.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으로 한국 소설 문학의 세계화의 시작점이 된 소설가 한강과 특별한 문학에 대한 이해로 남다른 즉흥 연주를 선보이는 이햇빛의 협업은 우리를 가득한 흰 빛, 저 너머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관객 수	사전 51명 | 현장 10명 | 기타 9명 | 총 7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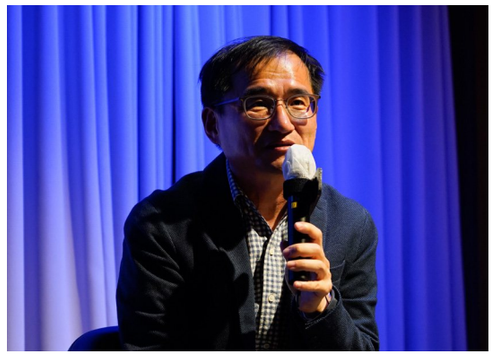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텍스트와 낭독 사이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9:00~20: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조연주(편집자/사회) 김연수(소설가)
참여자 소개	**조연주(편집자/사회)**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한 뒤 지금까지 책을 만들고 있다. 문학동네에서 오랫동안 김훈, 은희경, 김영하, 김연수, 편혜영, 윤성희, 배수아, 박민규 등 여러 국내 작가들의 단행본과 문예지를 만들었다. 김연수의 『시절일기』를 시작으로, 현재는 출판사 레제에서 기획, 편집을 하고 있다. 몇 권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2021년 서울국제도서전 부산특별전 [넘치다]의 큐레이션과 전시, 2022년 보고타도서전 한국관 [공존] + [8인의 작가들]의 큐레이션을 맡았다. **김연수(소설가)** -1994년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를 출판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장편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 『밤은 노래한다』, 『원더보이』,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등과 소설집 『이토록 평범한 미래』, 『사월의 미, 칠월의 솔』, 『세계의 끝, 여자친구』 등을 발표했다.
프로그램 내용	문자 언어인 텍스트가 음성 언어로 몸을 바꿀 때 생기는 미묘한 파동, 그것에서 빚어지는 문자와 음성 사이의 미세한 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김연수가 미발표 신작 단편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관객들을 위해 선곡해온 음악을 들려준다. 그의 저서를 여러 권 편집했고 곧 출간될 새 작품집의 편집을 맡기도 한 조연주 편집자가 김연수와 신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아울러 관객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관객 수	사전 52명 | 현장 14명 | 총 66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시인과 시인 사이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6:00~17:30
장소	001스테이지
참여자	조대한(문학평론가/사회) 이영광(시인) 이원(시인)
참여자 소개	**조대한(문학평론가/사회)** -2018년 현대문학 신인추천에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계간 『자음과 모음』, 『파란』의 편집위원 일을 함께하고 있으며 서울예대 등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영광(시인)** -1965년 경북 의성 출생. 1998년 『문예중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그늘과 사귀다』, 『아픈 천국』, 『나무는 간다』, 『끝없는 사람』, 『깨끗하게 더러워지지 않는다』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지훈상, 미당문학상을 받았다. **이원(시인)** -『세계의 문학』으로 데뷔했다. 시집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오토바이』, 『불가능한 종이의 역사』, 『사랑은 탄생하라』 등이 있으며, 산문집으로 『최소의 발견』, 『시를 위한 사전』 등이 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예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이영광 시인과 이원 시인은 서로 성별도, 나이도, 무엇보다 시의 성격도 판이하게 다르지만, 서로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시인으로 꼽는 데 주저함이 없고 인간적으로도 매우 친밀한 문단 선후배 사이다.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모시고 서로에 대해, 서로의 시에 대해, 각자의 시 세계가 보여주는 서정의 깊이와, 언어와 이미지가 충돌하면서 탄생하는 낯선 순간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어보고 시 낭독으로 향유해 본다.
관객 수	사전 12명 | 현장 5명 | 총 17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작가와 독자 사이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2:00~13:00
장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참여자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장강명(소설가) 낭독 독자 2인
참여자 소개	**허희(문학평론가/사회)** -문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고 있다. 삶의 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비평집『시차의 영도』와 산문집『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을 냈다. **장강명(소설가)** -월급사실주의 소설가. 연세대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에 입사해 11년 동안 기자로 일했다. 2011년 장편소설『표백』으로 한겨레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열광금지, 에바로드』로 수림문학상,『댓글부대』로 제주4·3평화문학상과 오늘의 작가상,『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작가상을 받았다. 다른 작품들로 젊은작가상, 이상문학상, 심훈문학대상, SF어워드 장편소설 우수상 등을 받았다. 장편소설『재수사』,『한국이 싫어서』,『우리의 소원은 전쟁』, 연작 소설『산 자들』,『뤼미에르 피플』, 논픽션『당선, 합격, 계급』,『팔과 다리의 가격』, 에세이『5년 만에 신혼여행』,『책, 이게 뭐라고』,『책 한번 써봅시다』 등을 썼다. 아내 김혜정 대표와 함께 온라인 독서모임 플랫폼 〈그믐〉(www.gmeum.com)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장강명의 신작 장편『재수사』의 일부분(작가와 독자가 직접 선택)을 장강명과 독자 2인이 번갈아 낭독한다. 작가가 독자에게 읽어주고 싶은 부분과 독자가 다른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을 함께 들어보고, 작가의 관점과 독자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나아가 작가가 소설을 구상하고 탈고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팎의 일화들, 독자가 작품을 읽고 작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에 대해 진행자와 환담을 나눈다.
관객 수	사전 18명 | 현장 4명 | 총 22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인간과 기술변화, 둘 사이의 문학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4:00~15:0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김병익(문학평론가) 최현미(기자/사회)
참여자 소개	**김병익(문학평론가)** -193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성장했고,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문화부에서 기자 생활(1965~75)을 했고, 한국기자협회장(1975)을 역임했으며, 1970년 김현, 김치수, 김주연 등과 함께 계간『문학과지성』편집동인으로 참여했다. 1975년 문학과지성사를 창사하여 2000년까지 대표로 재직했다.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2005~07)을 지냈다. 현재 문학과지성사 상임고문으로 있다. 대한민국문학상, 대한민국문화상, 팔봉비평상, 대산문학상, 인촌상 등을 수상했다. **최현미(기자)**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일간지 기자로 일하고 있다. 여러 부서를 거쳤지만 긴 시간 문학과 북리뷰에 애정을 쏟은 문화부 기자라는 걸 자랑스레 생각한다. 기자로 일하며 글쓰기 작업도 병행해『사소한 기쁨』(현암사)『가장 사적인 마음의 탐색』(바다출판사)『우리가 사랑한 소녀들』(혜화1117)『이토록 어여쁜 그림책』(이봄) 등을 냈다. 콘텐츠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현재 문화콘텐츠학 박사과정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기술 변화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문학에서 변화하는 것과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는 것에서 평생을 문학과 함께해온 김병익 평론가의 통찰과 고민을 독자와 나누는 시간 1) 문학의 의미와 사회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 2) 기술혁신에서 문학이 변하는 부분, 동시에 변하지 않고 지속될 부분 3) ai가 문학을 창작하는 시대에 문학의 모습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
관객 수	사전 9명 | 현장 2명 | 총 11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하기(Cuttage Novel)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9:00~20: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오영진(연출가)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윤고은(소설가)
참여자 소개	**오영진(연출가)**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을 개발하고『기계비평』의 기획자로 활동해 왔다.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을 소재로 한 웹반응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햇살 아래서>(2018)의 공동 개발자다. 가상세계에서 비극적 사건의 장소를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 <에란겔: 다크투어>(2021.03.20-21)와 학술대회 <SF와 지정학적 미학> 연계 메타버스 <끝나지 않는 항해>(2021.12.06~19), <AI공포라디오쇼>(2022.08.04. 아트센터나비)를 연출했다. **허희(문학평론가/사회)** -문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고 있다. 삶의 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비평집『시차의 영도』와 산문집『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을 냈다. **윤고은(소설가)** -소설가. 라디오 디제이. 소설집『1인용 식탁』,『알로하』,『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부루마불에 평양이 있다면』과 장편 소설『무중력증후군』,『밤의 여행자들』,『해적판을 타고』,『도서관 런웨이』와 에세이『빈틈의 온기』를 썼으며, 한겨레문학상, 이효석문학상, CWA 대거상을 받았다. 라디오 <윤고은의 EBS 북카페>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Novel AI 같은 인공지능은 다소 긴 소설도 창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문학자 판기처럼 소설이 나오는 현실이 두렵게 느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의 리터칭이 매우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문장은 제 멋대로 자라나는 덩쿨이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 소설가와 인간 소설가가 협업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꺾꽂이할 수 있는지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고자 한다.
관객 수	사전 39명 | 현장 15명 | 총 54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쓰기란 무엇인가?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4:00~15:30
장소	001스테이지
참여자	오영진(연출가/사회) 임태훈(SF평론가) 후니다 킴(공기조각가, 메타미디어아티스트) 최승준(미디어아티스트)
참여자 소개	**오영진(연출가)**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을 개발하고 『기계비평』의 기획자로 활동해 왔다.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을 소재로 한 웹반응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햇살 아래서>(2018)의 공동 개발자다. 가상세계에서 비극적 사건의 장소를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 <에란겔: 다크투어>(2021.03.20-21)와 학술대회 <SF와 지정학적 미학> 연계 메타버스 <끝나지 않는 항해>(2021.12.06~19), <AI공포라디오쇼>(2022.08.04. 아트센터나비)를 연출했다. **임태훈(SF평론가)**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다. 문학과 테크놀로지, SF 문화와 사운드스케이프 예술을 연구하고 있다. 인문학협동조합 미디어기획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저서로 『블레이드 러너 깊이 읽기』(2021, 공저), 『기계비평들』(2019, 공저), 『한국 테크노컬처 연대기』(2017, 공저), 『시민을 위한 테크놀로지 가이드』(2017, 공저), 『검색되지 않을 자유』(2014), 『우애의 미디올로지』(2012) 등이 있다. AI 프롬프트 프로그래밍은 우리 시대의 창작 문화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 아직 이 기술은 미완의 상태다. 앞으로 어떤 상상력을 촉발하고 매개할 수 있을지 섣불리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이 기술의 잠재성은 여러 사회적 관계, 비/물질 장치와의 연결 속에서 본격적으로 발현될 것이다. 텍스트 뭉치와 픽셀 덩어리 그림을 화면에 띄우는 수준을 넘어, 현실 세계를 생성하는 기술이 될 수 있을까? "쓰면 현실이 된다." AI 시대의 문학은 이 명제의 가공할 공포를 감당하며 인간/비인간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쓰기'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후니다 킴(공기조각가, 메타미디어아티스트)** -후니다 킴은 공기조각가이자 메타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는 인간 생태계에 깊게 침투한 기술과 기술이 촉발하는 생태계의 변화에 주목해왔다. 인간의 지각 능력과 감수성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엄청난 정보량을 감각, 분석하기 힘든 시대에 작가는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장치인 '환경 인지 장치'를 제작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 장치를 인간에게 직, 간접적으로 이식(implant)하는 시도를 한다. 전시로는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 멀티 버스 2021(국립현대미술관), 네오 프로덕트 선언(디스위켄드룸) 등이 있다. **최승준(미디어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AI를 활용한 프롬프트 프로그래밍으로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인간에게서 배우는 기계의 학습과 기계의 학습에서 성찰하는 인간의 배움에 관심이 많다.

구분	내 용
프로그램 내용	생각이 있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표현이 있고 생각이 있다. 인간의 쓰기는 수많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발전되고 변형되어 왔다. 쓰기의 테크놀로지는 곧 인간의 생각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야기할 새로운 쓰기와 생각의 방식을 예측해 본다. 현실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논평과 SF속 쓰기 테크놀로지를 비교해보며 미래를 예측해 본다.
관객 수	사전 23명 | 현장 5명 | 총 2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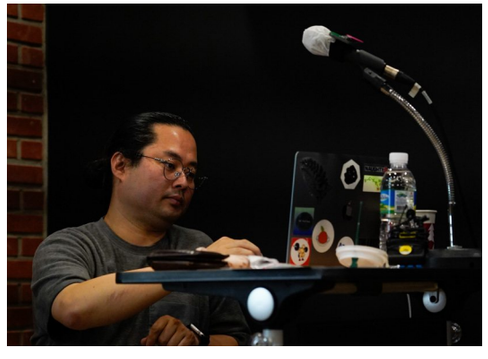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AI와 함께 시 조각하기(Carving poetry with AI)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6:00~17:30
장소	001스테이지
참여자	오영진(연출가/사회) 권보연(사이버텍스트 디자이너) 김언(시인)
참여자 소개	**오영진(연출가)** -2015년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목 <소프트웨어와 인문비평>을 개발하고『기계비평』의 기획자로 활동해 왔다.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을 소재로 한 웹반응형 인터랙티브 스토리 <햇살 아래서>(2018)의 공동 개발자다. 가상세계에서 비극적 사건의 장소를 체험하는 다크투어리즘 <에란겔: 다크투어>(2021.03.20-21)와 학술대회 <SF와 지정학적 미학> 연계 메타버스 <끝나지 않는 항해>(2021.12.06~19), <AI공포라디오쇼>(2022.08.04. 아트센터나비)를 연출했다. **권보연(사이버텍스트 디자이너)** -문학박사. 플레이어블 컨설팅 대표. 연세대학교 겸임교수.사이버텍스트 디자이너. 내러티브 경험과 플레이 경험 디자이너로 활동한다. 기술과 인문, 디자인 융합을 통해 시대정신을 실험하는 낯선 경험과 공감 기계를 발명하는 데 에너지를 쓴다. 저서『게이미피케이션』,『뉴스 스토리텔링』등이 있으며, 인터랙티브 픽션 <햇살 아래서>, <B사감: The New World>와 TRPG <안녕이라 하기 전에> 등을 창작했다. <PUBG 에란겔 다크투어>, <AI 공포 라디오쇼> 리드퍼포머로 공연했다. **김언(시인)** -시인. 1973년 부산에서 태어나 1998년『시와사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저서로 시집『숨쉬는 무덤』,『거인』,『소설을 쓰자』,『모두가 움직인다』,『한 문장』,『너의 알다가도 모를 마음』,『백지에게』, 산문집『누구나 가슴에 문장이 있다』, 시론집『시는 이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등이 있다. 대산문학상, 김현문학패, 박인환문학상, 미당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현재 추계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프로그램 내용	최근 인공지능 시집이 여럿 출간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이 시를 쓴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과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일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공지능 시인과 인간 시인이 협업하여 어떻게 시를 '조각'할 수 있는지 라이브 공연을 보여주고자 한다.
관객 수	사전 29명 | 현장 2명 | 총 31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인공지능 시대의 문해력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2:00~13:00
장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참여자	허희(문학평론가/사회) 노대원(교수) 김승범(메타미디어아티스트)
참여자 소개	**허희(문학평론가/사회)** -문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고 있다. 삶의 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비평집 『시차의 영도』와 산문집 『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을 냈다. **노대원(교수)** -제주대 국어교육과 및 인공지능융합교육전공 교수. 대산대학문학상과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포스트휴먼 연구자 네트워크' 공동 운영진이며, AI 교육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저서로 『팬데믹 모빌리티 테크놀로지』(공저), 『의료문학의 현황과 과제』(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과 평론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때」, 「포스트휴먼과 인공지능 서사」,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교육의 구현 방안 모색」, 「SF의 장르 특성과 융합적 문학교육」 등이 있다 **김승범(메타미디어아티스트)** -엔드 유저를 위한 (혹은 의한) 컴퓨팅에 관심을 두고 작업한다. 메타미디어로서의 컴퓨팅이 일상의 리터러시가 되어 개개인이 사유하고 표현할 때, 우리 문화와 사회를 채우고 있는 기술 매체에 대해 다르게 읽고 생각할 계기와 맥락이 만들어진다 생각한다. 이를 위한 언어적이면서, 동시에 비언어적인 경험을 일으키는 키트를 만들고, 워크숍과 전시로 이야기를 풀고 있다. 현재 메타미디어 콜렉티브 'PROTOROOM(프로토룸)'으로 활동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프로그램 내용	야외 무대에서 문해력 전문가인 노대원 교수와 미디어 아티스트인 김승범 작가가 만나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새로운 읽기방식 문제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 뿐 아니라 세상에 없는 사실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미 과거에 속한 인물을 다시 불러내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재현이 아니라 구현의 세계가 오고 있다. 이 같은 세상을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 지 '인공지능시대의 문해력'이라는 관점에서 토론하고자 한다.
관객 수	사전 4명 | 현장 4명 | 총 8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낭독회 <수용>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2:00~13:0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강보원(시인) 김뉘연(시인)
참여자 소개	**강보원(시인)** -시인. 『문학적으로 걷기』, 『수사학: 장식과 여담』, 『마침』, 『방』 등의 공연과 전시에서 전용완과 함께 문서를 발표했고, 『모눈 지우개』, 『부분』 등을 썼다. **김뉘연(시인)** -시집 『완벽한 개업 축하 시』를 썼고 『셋 이상이 모여』를 함께 썼다.
프로그램 내용	텍스트는 독서라는 발견 행위를 통해 발생하고 수용된다. 이 과정은 새로운 텍스트의 배태를 예비한다. 시인 강보원, 김뉘연이 마련하는 낭독회 <둘 사이, 수용>은 텍스트의 발생-수용의 과정을 통해 성립되어가는 두 사람의 다음 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현재 두 시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낭독하고 이를 두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낭독과 대화의 주제가 되는 텍스트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 집필된 두 사람의 시를 낭독을 통해 발견해본다. 시 문학에 있어 '수용'의 문제를 살펴보는 이번 시간은 시의 창작 과정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관객 수	사전 15명 | 현장 1명 | 총 16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4:00~15: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소유정(문학평론가) 김복희(시인)
참여자 소개	**소유정(문학평론가)**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산문집 『세 개의 바늘』(민음사, 2021)과 비평 연구서 『끝없이 투명한 언어』(공저)(문학과지성사, 2022)가 있다. **김복희(시인)** -시인. 시집 『내가 사랑하는 나의 새 인간』, 『희망은 사랑을 한다』, 『스미기에 좋지』, 산문집 『노래하는 복희』를 출간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듣는 것보다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시인과 평론가 사이에 놓인 시, 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시와 평론가가 생각하는 시의 시, 그 사이에는 애틋한 감정, 냉철한 판단과 엄밀한 숙고 그 이상이 있다. 해설 낭독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는 "그 이상"으로 추측되는 것들을 탐색해보는 시간이다. 그로부터 시가 쓰이는 이유와 시를 읽는 까닭을 찾아보는 행사이다. 소유정과 김복희는 살뜰한 친구 사이이다. 그런 그들이 2022년 가을 출간된 시집 『스미기에 좋지』를 통해 만났다. 한 사람은 시집에 해설을 적은 평론가로 다른 한 사람은 시집의 시인으로. 그리하여 이 시집은 두 사람 사이 문학적 대화가 되었다. 해설 낭독회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는 기존의 시인 중심, 쓰기 중심의 낭독회에서 벗어난 읽기 중심의 낭독회이다. 소유정이 집필한 시집 해설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정말 스미기에 좋지>를 중심에 두고 그가 인용한 시들을 시인 김복희의 낭독으로 만나본다. 이 시집을 읽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본다. 다정함과 살뜰함을 만들어가면서.
관객 수	사전 23명 | 현장 2명 | 총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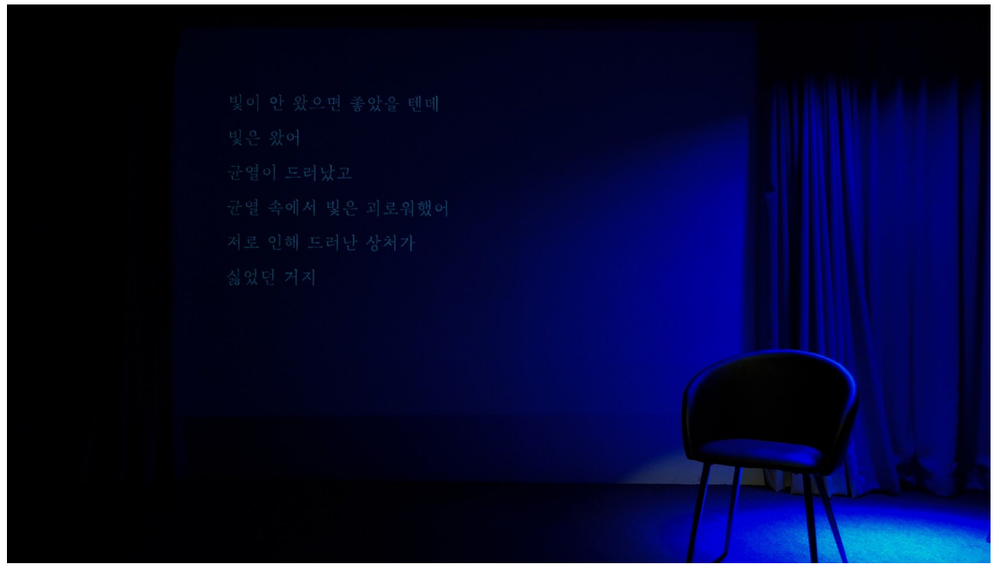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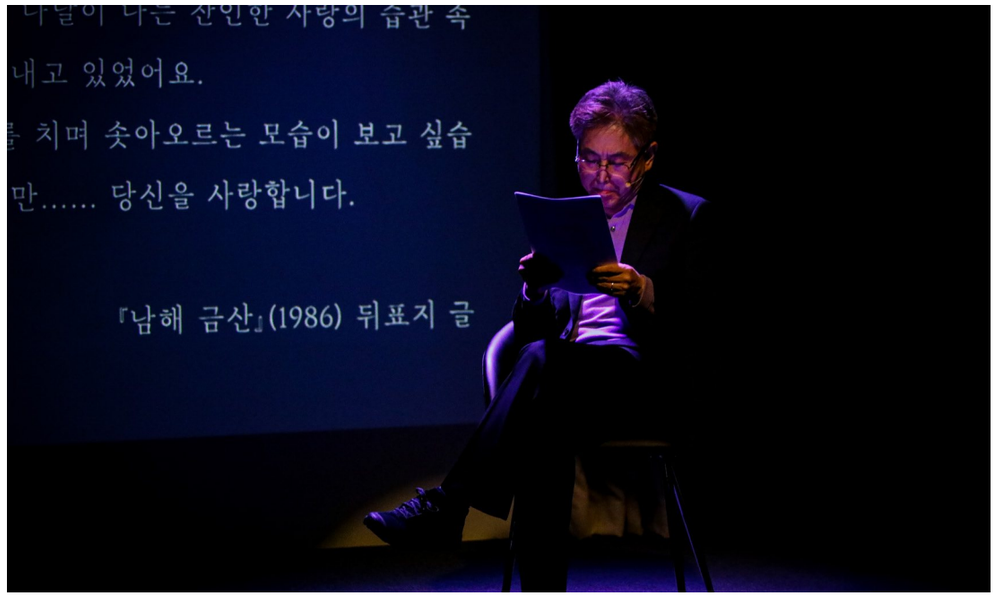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시와 독자: 어둠속의 시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9:00~20: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이성복(시인)
참여자 소개	**이성복(시인)** -1952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불문과와 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1977년 계간『문학과지성』겨울호를 통해 등단했다. 1982년부터 2012년까지 계명대학교 불문과와 문예창작과에서 강의했다. 펴낸 책으로 시집『뒹구는 돌은 언제 잠 깨는가』, 산문집『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했는가』, 시론집『무한화서』등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독자가 시에 몰입하는 순간, 모든 빛은 사라지고 모든 소리는 자취를 감춘다. 둘 사이 언어와 신체라는 객체 간 경계는 간곳없이 지워진다. 칠흑같던 어둠은 따뜻해지고 방향 잃게 만들던 고요는 아늑해진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것은 차라리 기쁨이 된다. 마치 누가 손을 잡아주기라도 한 것처럼 독자는, 시가 거두고, 시가 드리운 그곳을 걸어간다. 시에로의 진입은 반드시 활자에 의탁해야 가능한 일일까. <시와 독자: 어둠속의 시>는 그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빛을 거두어 마련한 어둠속에서 독자는 시인의 음성을 통해 시를 만난다. 시의 몸을 만지고, 시의 결을 더듬게 된다. 그것은 은밀한 행위이다. 동시에 그것은 적나라한 방식이다. 한국 시의 한 절정을 이룬 이성복 시인의 때론 추상과 같은 때론 더없이 자상한 시 낭독으로, 청각이라는 한 감각을 통해 시를 만나본다. 처음엔 이 어둠의 낯섦이 버거울 것이다. 이내 독자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시라는 꿈을 시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하여 거기,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열릴 것이다.
관객 수	사전 49명 | 현장 17명 | 총 66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안녕, 미워 죽겠는 나의 유령 친구 : 김수영과 박인환
프로그램 유형	강연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4:00~15:30
장소	001 스테이지
참여자	정한아(시인)
참여자 소개	**정한아(시인)** -2006년『현대시』로 등단했다. 어릴 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읽고 쓰는 데 재미 들렸다가 계속하고 있다. 대학 때는 서양철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는 국문학을 공부했다. 최근에는 신학과 범죄학에 관심이 있다. 김수영 연구로 석사학위를, 김춘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문예창작학과에 재직 중이다. 시집『어른스런 입맞춤』,『울프 노트』가 있으며, 시산문집『왼손의 투쟁』이 있다. 2019년『영남일보』구상문학상을 받았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사는 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에 다름 아니다. 관념과 사물 사이, 문학적인 것과 비문학적인 것 사이,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반복과 화해를 거듭하며 절박한 아름다운 쪽으로 이동하며 이어져 온 문학의 이야기는 늘 새롭고 늘 흥미진진하다. 1920년대에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좌우간 첨예 이념 대립에 이어 한국전쟁을 거쳐 전후 한국사회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절을 함께 지낸 시인 김수영과 박인환의 이야기를 시인이자 한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정한아로부터 들어본다. 학위 논문의 주제로 삼을 정도로 김수영과 박인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시인 정한아는, 문학적 아우라 너머 더없이 사람 냄새를 '풍기는' 두 사람의 삶과 그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관객 수	사전 8명 | 현장 1명 | 총 9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한 걸음 더 시의 대화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6:00~17:30
장소	001 스테이지
참여자	박소란(시인) 최지은(시인)
참여자 소개	**박소란(시인)** -시인. 2009년『문학수첩』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심장에 가까운 말』,『한 사람의 닫힌 문』,『있다』가 있다. **최지은(시인)** -2017 창비신인시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봄밤이 끝나가요, 때마침 시는 너무 짧고요』가 있다.
프로그램 내용	둘 사이, 물리적인 그리하여 심리적인 거리를 만들어내는 틈에는 대체 무엇이 있어 우리는 관계를 맺고 이어나가는가. 시 낭독회 <한 걸음 더 시의 대화>는 두 시인의 사이에 지어진 더러는 이어진, 보이지 않는 관계성을 시 낭독을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이다. 두 시인의 관계를 드러내는 특정한 주제어 아래 선정된 시(詩)들을 마치 편지를 주고받듯 보내고 화답하는 두 사람 사이 낭독회로 진행된다. 박소란과 최지은은 절친한 관계이다. 그들은 자주 만나 걷고 대화를 나눈다. 산책길에 어떤 것을 함께 목격하고 그것을 비밀스레 간직한다. 그러한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갖게 되는 감정과 이해를 시를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박소란이 전하고 최지은이 답하며, 최지은이 고백하고 박소란이 응하는 온도 높은 낭독회 <한 걸음 더 시의 대화>는 시를 언어처럼 부려 의미를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硏究)인 동시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시도해왔던 은유적 표현을 낭독회로 보여주는 알뜰한 시도가 될 것이다.
관객 수	사전 13명 | 현장 0명 | 총 13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노래서점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4:00~15: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나실인(작곡가) 이지현(소프라노)
참여자 소개	**나실인(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독일 뒤셀도르프 시립음대 디플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거쳤다. 작품으로 2017년 오페라 <나비의 꿈>, 발레 <처용>, 2019년 오페라 <검은리코더>, 음악극 <극장앞 독립군>, 2020년 발레 <오월바람>, 오페라 <빨간바지>, 2021년 음악극 <명색이 아프레걸>, 오페라 <춘향탈옥> 등이 있다. **이지현(소프라노)** -성신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 음대 학사, 석사 과정을 거쳤다.마스트리히트 Chanson de Orchestre, Timf Ensemble 외 다수의 현대음악공연의 솔리스트로 활동했다. 이지현 찬송가, 노래서점 외 다수의 음반 발매했다.
프로그램 내용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노래_윤동주를 노래하다 지식과 힘을 길러 우리 말과 문화를 지켜내고 싶었던 청년 윤동주, 그가 죽은지 70여 년만에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가 꿈꿔왔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 윤동주의 시는 순수하고 선함과 동시에 강인하고 의연하다. 무엇보다 그의 시는 정제된 언어를 넘어 노래가 되어 마음을 울린다. 그는 우리 민족의 저항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반성, 고뇌 등의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강인한 정신, 젊음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표현해낸 전 세계 인류의 유산이다. 그의 시에 음악을 붙이는 것은 그의 시가 원래부터 노래이기 때문이고, 음악을 통해 그의 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윤동주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 (2022) 1. 서시 2. 자화상 3. 별 헤는 밤 4. 쉽게 쓰여진 시 5. 참회록 순이를 기억하는 3개의 노래 (2022) 1. 소년 2. 눈 오는 지도 3. 사랑의 전당 추억과 일상을 담은 4개의 노래 (2022) 1. 아침 2. 빨래 3. 비 오는 밤 4. 병원
관객 수	사전 12명 | 현장 4명 | 총 16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폐막공연 : <만선> 낭독극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9:1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이호성(배우) 이영석(배우) 천승세작가(원작) 윤미현(각색,연출) 진현태(조연출)
참여자 소개	**이호성(배우)** -1981년 <유리동물원>으로 데뷔했다.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수족관>, <양갈래머리와 아엠에프> 등 100여 편에 출연했고, 영화 <마유미>, <테레사의 연인>, <황산벌>, <여고생 시집가기> 외 다수 작품이 있으며, 방송 <조선백자 마리아상>, <탐나는도다>, <어린이 손자병법>, <영도다리를 거너다>,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외 다수 작품이 있다. 수상으로는 1988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1989년 영희연극상, 1993년 제30회 동아연극상 남우주연상 외 다수 수상이 있다. **이영석(배우)** -연극 <더블린캐롤>, <고도를 기다리며>, <양갈래머리와아이엠에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외 다수 작품에 참여했고, 영화 <선생 김봉두>, <왕의 남자>, <박열>,<자산어보> 외 다수 작품에 출연했으며 방송 <해를 품은 달>, <슬기로운 감빵생활>, <나의 아저씨>, <나빌레라> 외 다수 작품이 있다. 수상으로는 1994년 한국연극배우협회 우정상, 1999년 한국연극협회 연극인상, 2014년 제1회 서울연극인대상 연기상, 2017년 한국연극배우협회 올해의 배우상 외 다수 수상 이력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이번 공연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높은 뱃삯을 치르고, 칠산 앞바다에 찾아온 부서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그 다음, 이야기부터 시작된다. 문학주간 프로그램의 주제 '둘 사이'에 맞춰 만선 또한 이인극으로 각색되었다. 곰치와 그의 친구 성삼이가 주인공이다. 천승세 작가님의 생생한 대사를 오롯이 지키고자 마음을 다해 임했다. 대사, 하나하나 작가님의 쓰신 그대로 살렸다. 곰치와 성삼의 인물 또한, 원작에서의 성격을 그대로 지키고자 노력했다. 혹여, 원작에서의 인물들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작가님이 쓰신 한 음절, 한 음절의 대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다.) 이인극으로 각색하면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했던 대사를 곰치와 성삼이 대신 표현하는 대사에 있어서도- 어떤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곰치와 성삼이) 대신 표현했는지도, 작품 안에 상세히 기록해 두었다. 사실주의 연극의 대표인 <만선>이, 이호성 배우님, 이영석 배우님들의 연기를 통해 현재 관객들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관객 수	사전 48명 | 현장 23명 | 총 71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한국문학과 해외문학, 둘 사이의 번역가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2:00~13:00
장소	001 스테이지
참여자	김현우(읻다 대표/사회) 문호영(번역가) 류승경(번역가)
참여자 소개	**김현우-읻다 대표** 읻다 출판사 기획자 겸 나선 에이전시(한국문학 번역 에이전시) 대표이다. **문호영-번역가** 서울과 미국의 소도시에서 자라고 문화인류학을 공부했다. 번역작으로 책『남은 인생은요?』(성 지음),『You Have Reached the End of the Future』(황인찬 지음), 단편소설 The Sci-fi Hero of Our Dreams (한정현 지음) 등이 있다. 하나의 한국어 시를 여러 영번역으로 읽을 수 있는 잡지 chogwa zine의 애독자 겸 기고자이다. **류승경-번역가** 한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서 거주했고 현재는 서울에서 번역가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배명훈『타워』, 김보영 중편선『I'm Waiting for You』(Sophie Bowman과 공역), 최은영『쇼코의 미소』등을 영어로 옮겼고, 한글로 옮긴 책으로는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의『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모지스 할머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다.
프로그램 내용	한국문학과 해외문학의 사이, 분투하는 번역가들의 일과 생각을 소개한다. 또, 다른 나라 독자들의 눈으로 보는 한국문학, 그리고 한국문학을 더욱 매력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번역가들의 웃픈 에피소드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1) 한국문학 번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2) 지금까지 번역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문호영: 황인찬, 한정현/ 류승경: 최은영, 배명훈, 김보영 등) 3) 번역하고 싶은 한국문학 작품의 기준 4) 번역가로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 저작권/번역 샘플 획득 과정의 에피소드 5) 두 번역가가 함께 참여했던 초과프로젝트(https://www.chogwa.com/)에 대한 소개 및 번역가들의 공동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
관객 수	사전 10명 | 현장 2명 | 총 12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제주와 작가 사이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6:00~17:30
장소	001 스테이지
참여자	양경언(문학평론가/사회) 최진영(소설가)
참여자 소개	**양경언(문학평론가/사회)** -1985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국문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현대문학』에「참된 치욕의 서사 혹은 거짓된 영광의 시-김민정론」을 발표하며 비평 활동 시작. 지은 책으로 비평집『안녕을 묻는 방식』(창비,2019) 등이 있다. 2019년 제37회 신동엽문학상 수상. **최진영(소설가)** -2006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장편소설『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끝나지 않는 노래』,『구의 증명』,『해가 지는 곳으로』,『이제야 언니에게』,『내가 되는 꿈』, 소설집『팽이』,『겨울방학』,『일주일』등을 썼다.
프로그램 내용	육지에서 살다가 제주로 내려간 소설가 최진영의 제주에서의 삶과 문학을, 제주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온 문학 평론가 양경언의 진행으로 들여다본다. 작가가 머무는 장소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혹은 삶의 공간이 작가 정신과 맺는 관계, 제주라는 공간의 특수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최진영 작가가 직접 찍은 제주의 풍경 사진들을 배경으로 작가가 낭독하는 제주 에세이를 감상해본다.
관객 수	사전 28명 | 현장 2명 | 총 30명





2. 기획프로그램

2-3
기획프로그램 세부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문학주간2022 뒷 이야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2:00~13:00
장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참여자	허희(문학평론가/사회) 유희경(시인) 백다흠(편집자) 김미월(소설가)
참여자 소개	**유희경(시인)**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7년 서울연극제 신작 희곡 페스티벌 신작 희곡 부문과 2008년『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며 본격의 쓰는 삶을 시작했다. 시집『오늘 아침 단어』,『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우리에게 잠시 신이었던』,『이다음 봄에 우리는』, 산문집『반짝이는 밤의 낱말들』,『세상 어딘가에 하나쯤』을 펴냈다.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을 운영하며 문화 행사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백다흠(편집자)** -명지대 문예창작학과와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사진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2005년부터『문예중앙』,『문학동네』,『은행나무』에서 국내문학 단행본 책 임편집, 2015년 문학잡지『악스트』를 창간하고 현재『악스트』와 은행나무출판사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미월(소설가)** -고려대 언어학과 및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4년『세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소설집『서울 동굴 가이드』,『아무도 펼쳐보지 않는 책』,『옛애인의 선물 바자회』, 장편 소설『여덟 번째 방』,『일주일의 세계』, 산문집『내가 사랑한 여자』, 번역서『바다로 간 가우디』 등을 출간했다. 젊은작가상, 신동엽문학상, 오늘의젊은예술가상, 이해조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허희(문학평론가/사회)** -문학과 관련된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고 있다. 삶의 진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시작한 일이다. 비평집『시차의 영도』와 산문집『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을 냈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주간2022 운영위원들이 모여 "둘 사이" 슬로건의 의미와 행사 기획의 배경을 비롯하여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다.
관객 수	사전 1명 | 현장 14명 | 총 15명







3. 공모프로그램

3-1
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도 문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 <문학주간>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특히 작가와 독자, 그 외 문학 향유자가 상호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및 제작, 출연하는 무대를 선보이고자 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이번 사업은 '둘 사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를 환영한다. 특히 무대와 객석, 쓰는 이와 읽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데 어우러져 문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스테이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낯선, 기꺼운, 수상한, 편안한 둘 사이 등으로부터 빚어질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들로 우리가 맞이할 문학의 미래를 밝혀주셨으면 한다.

행 사 명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추진목적	- 전국 규모 국민 참여형 연례 문학축제 개최로 문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인 문학 진흥 붐 조성 - 문인과 문학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문학계에 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기간	2022. 11. 7(월) ~ 11. 11(금) ※ 기간 내 운영, 구체적인 일정은 선정 후 협의 조정
지원규모	- 20개 내외 프로그램 선정(예정) - 프로그램별 최대 2,000,000원 지원
신청기간	2022. 8. 24(수) ~ 9. 8(목) 17:00까지 ※ 결과발표 : 10. 6(목)
신청대상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 분야 창작자 및 향유자(팀 참여 가능) ※ 기존 '작가 스테이지'와 달리 일반시민 및 독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까지 대상 확대
신청내용	문학작품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50분 내외 자유 형식의 오프라인 진행 프로그램
신청유형	1. 장소 지정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 또는 대학로 인근 실내공간에서 진행 공간 활용 관련 제반사항 논의 필요 2. 장소 비지정 마로니에공원 외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행 수도권 외 지역 프로그램 우대 ※ 장소 지정형의 경우, 추후 선정자 대상으로 시간 및 장소 조율 예정 ※ 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병행 희망 시 선정 후 사무처 협의 진행
운영방법	프로그램 제안서 검토/심사평가→약정 체결→프로그램 진행 →결과보고서→프로그램 예산 지급(사후) 관객 참가비는 무료 운영 권고 프로그램 운영 최소 2~3주 전 홍보 진행 ※ 문학주간 공식 SNS채널(블로그)을 활용한 홍보 포함 프로그램 운영 후 결과보고서 제출
선발 팀 수	장소 지정형 7팀 / 장소 비지정형 13팀 총 20팀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프로그램명	팀	출연	일정	장소	관객 수		
					사전	현장	총
우연과 필연 42(사이)	분리수거	한연희(시인) 강혜빈(시인) 김은지(시인) 임지은(시인)	11.07(월) 12:00~ 13:00	001 스테이지	17	1	18
괄호 채우기 낭독회 : ( )와 ( ) 사이	창작동인 켬	이소연(시인) 이서하(시인) 주민현(시인) 전영규(문학평론가)	11.08(화) 16:00~ 17:30	파랑새 극장	13	4	17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인문엠앤비	이민우(극작가/사회) 이노나(시인) 이자령(배우)	11.08(화) 14:00~ 15:30	001 스테이지	24	1	25
강독과 낭독 사이 : 관계의 가능성	공공연희	옥민아(극작가) 조승엽(음악감독) 김선기(배우) 권미나(배우)	11.09(수) 16:00~ 17:30	파랑새 극장	20	1	21
사물의 생애사	듣는소설	최정화(소설가) 김현아(배우/사회) 유이엽(연주자)	11.10(목) 12:00~ 13:00	까페 창비 *001스테이지 예정이었으나 팀 내 사정으로 인해 까페 창비에서 진행됨	0	20	20
애도하는 시	창작동인 뿔	최지인(시인) 양안다(시인) 최백규(시인)	11.10(목) 16:00~ 17:00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18	2	20
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 <문BTI> 상담 토크쇼	웹진 아는 사람	한소리(시인/사회) 김선오(시인) 김연덕(시인) 신이인(시인) 차유오(시인)	11.11(금) 16:00~ 17:30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10	4	14

3. 공모프로그램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프로그램명	팀	출연	형식	일정	장소	참여 관객
고양이와 나 사이에서	행복하자야옹	박진경(시인/사회) 서유진(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대표) 김하연(사진작가)	오프라인	11.07(월) 18:30~ 20:30	킁킁도서관	4
거북이와 플라스틱	아트 포 그린	서윤후(시인) 슬라이드로사(가수) 안지(가수)	오프라인	11.09(수) 19:00~ 20:30	쿠바왕	6
소설가와 소방관의 만남	동인 아시아	박지음(소설가) 권제훈(소설가) 도재경(소설가) 이준희(소설가) 장성욱(소설가) 추현동(소방관)	오프라인	11.11(금) 14:00~ 15:00	나주 소방서 대강당	46
식탁에서 쓰는 편지 : 소설과 현실 사이, 당신의 안부를 묻다	기억과 부엌사이	김미양(작가/사회) 이준엽(시인)	오프라인 / 온라인 (유튜브)	11.11(금) 19:00~ 21:00	북텐츠	4
여자 셋이 모여	여자 셋이 모여	김리윤(시인) 정재율(시인) 조해주(시인)	오프라인	11.11(금) 19:00~ 20:30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23
관계·사랑·성 글쓰기	신여성	배민정(작가) 정다이(작가) 배인경(작가)	오프라인	11.08(화) 11.10(목) 11.11(금) 19:30~ 21:00	신여성	33
인문산책 : 다시 읽다가, 잇다가	토핑	이지연(편집자) 김현진(작가) 이대철(퍼실리테이터)	오프라인	11.11(금) 15:00~ 17:30	대구하루 264 작은문학관 대구문학관	10
함께 놀당갑서양! (함께 놀다 가세요)	검은빵	곽윤숙(작가) 김태호(작가) 박남희(작가) 이규연(작가) 김태현(가드너) 신성옥(연주자)	오프라인	11.10(목) 16:00~ 17:30	카페 애옥	23
본격 부동산 문학 토크 : 갭과 갭 사이	내일의 집	김유담(소설가) 서경희(소설가)	오프라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11.08(화) 12:00~ 13:30	동네서점 공독서가	12
문학에 깃든 : 공존과 연대 - 갈등을 넘어 평화로!	우리나비	한소원(우리나비 대표/사회) 김숨(소설가) 이수복(소설가)	오프라인	11.10(목) 19:30~ 20:30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16
만지詩오 : 촉각 낭독회	PO (Project Object)	김석영(시인) 조어진(도예)	오프라인	11.09(수) 19:00~ 20:00	조조공방	10
숨과 쉼 사이 문학이 스며들 때	창작동인 어흥	한희정(진행) 박미라(작가) 이자경(작가) 안미란(작가) 김효선(시민패널)	오프라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11.09(수) 15:00~ 16:20	창비부산 창작홀	18
글 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	2W	홍아미(진행) 박성혜(작가) 조은영(작가) 조혜란(작가)	오프라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11.10(목) 19:00~ 20:00	언제라도 여행 카페	27

3. 공모프로그램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우연과 필연 42(사이)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7일(월) 12:00 ~ 13:00
장소	001스테이지
관련 키워드	#우연과 필연사이 #4편의 분리수거 시 #함께쓰기 #시낭독회 #시인의시간
참여자	팀 분리수거:한연희(시인) 강혜빈(시인) 김은지(시인) 임지은(시인)
참여자 소개	**한연희(시인)** -시집『폭설이었다 그다음은』이 있다. **강혜빈(시인)** -집『밤의 팔레트』가 있다. 사진가 '파란피paranpee'. **김은지(시인)** -시집『책방에서 빗소리를 들었다』,『고구마와 고마워는 두 글자나 같네』가 있다. **임지은(시인)** -시집『무구함과 소보로』,『때때로 캥거루』가 있다.
기획의도	시인 4명과 함께, 우연 속에서 우리만의 시를 발견해보자. 유리의 시간, 종이의 시간, 플라스틱의 시간, 캔의 시간에 각각 머무르는 동안 독자와 시인은 필연적으로 함께 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어 붙인 아름다운 4편의 시 낭독회.
프로그램 내용	우연히 만난 4명의 시인은 필연적으로 문학적 소통을 향한 꿈을 꾸었습니다. 종이와 캔과 플라스틱과 유리라는 물성을 통해 각각의 개성에 맞는 시를 쓰면서 꾸준히 독자들과 만나 읽고 공감하는 일은 저희에게 제일 기쁜 일이었습니다. 팀 <분리수거>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독자를 마주했고, 매번 참여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물성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충만한 감동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독자와의 거리를 더 좁혀 시를 함께 써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4개의 물성에 해당하는 상자 속에는 저희 4명의 시인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물성에 대해 감각한, 연결되지 않은, 무의미한, 우연한 문장들이 들어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독자분들은 이 문장들을 각각 주워갑니다. 그리고 우연에 기대어 필연적으로 이어진 42개의 문장을 서로 읽으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총 4편의 시로 완성되어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분명 우리를 아주 끈끈하게 연결해줄 것이며, 창작의 기쁨과 낭독의 기쁨 둘 사이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관객 수	사전 17명 | 현장 1명 | 총 18명





3. 공모프로그램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괄호 채우기 낭독회 : ( )와 ( ) 사이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6:00 ~ 17:30
장소	파랑새 극장
관련 키워드	#코로나19 #시 #에코페미니즘 #업사이클링 #문학동인 켬
참여자	창작동인 켬:이소연(시인) 이서하(시인) 주민현(시인) 전영규(문학평론가)
참여자 소개	**이소연(시인)** -2014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 시집『나는 천천히 죽어갈 소녀가 필요하다』,『거의 모든 기쁨』이 있다. **이서하(시인)** -2016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 시집『진짜 같은 마음』이 있다. **주민현(시인)** -2017년 한국경제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으로 등단. 시집『킬트, 그리고 퀼트』가 있다. **전영규(문학평론가)** -201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으로 등단. 평론집을 준비 중이다.
기획의도	시인은 코로나를 주제로 한 편씩 시를 쓰고 다음 사람이 앞선 시의 단어를 재활용해 새로운 시를 쓰는 방식으로 총 9편의 시를 썼다. 재활용한 단어에는 마스크를 씌워 빈칸 처리하였다. 독자는 빈칸에 자신만의 단어를 넣어보고 문장 순서를 고치기도 하며 각자 새로운 시를 완성해 시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 본다. 이를 통해 작가와 독자 사이, 사람과 동물 사이, 바이러스와 사람 사이를 탐색하고 그 관계를 뒤바꾸어 본다.
프로그램 내용	본 낭독회는 2022년 9월 출간한 소시집『오직 ( )만이 살아남는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소시집에 실린 시와 해설을 낭독하고, 마스크를 씌워 빈칸을 뚫은 시에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만의 단어를 넣어보고 문장 순서를 고쳐 새로운 시를 써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관객들에게 입장료 대신 받은 하나의 문장들로 공동창작 시를 완성한다.
관객 수	사전 13명 | 현장 4명 | 총 17명



3. 공모프로그램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4:00 ~ 15:30
장소	001스테이지
관련 키워드	#가해자 #피해자 #부모 #가족 #둘_사이
참여자	인문엠앤비:이민우(극작가/사회) 이노나(시인) 이자령(배우)
참여자 소개	**이민우(사회)** -희곡작가. 희곡집『큐빅과 다이아몬드』,『오픈런, 대학로』 **이노나(시인)** -㈜인문엠앤비 대표. 시인 시집『마법 가게』,『골목 끝 집』 **이자령(배우)** -배우, 컬러리스트. 드라마《슬기로운 감빵생활》,《황금빛 내 인생》,《송곳》,《속아도 꿈결》영화《장산범》연극《무지개 끝》등 출연. 2022년 고마나루연극제 여자연기상
기획의도	우리 모두는 '둘 사이'의 대상자일 뿐 아니라 '둘 사이'의 관계를 바라보는 제3자이다.'둘 사이'를 주제로 '둘 사이'를 바라보며 한쪽을 선택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한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혹은 가족과 친구)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나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또 그 선택이 과연 옳은 결정이며 진정한 나의 모습일까?
프로그램 내용	가해자 부모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는 두 작품. 하타사와 세이고, 구도 치나쓰 作『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그리고 수 클리볼드 作『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두 편을 각각 이노나 시인과 조현진 배우가 소개 및 중요 부분을 낭독하고 대담을 나눈다. 두 작품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어쩔 수 없는 선택 사이'에 대하여 관객들과 소통한다. 똑같은 독자로서,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의 우여곡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어머니로서, 시인과 여배우의 낭독과 대담은 많은 공감과 큰 울림을 선사한다
관객 수	사전 24명 | 현장 1명 | 총 2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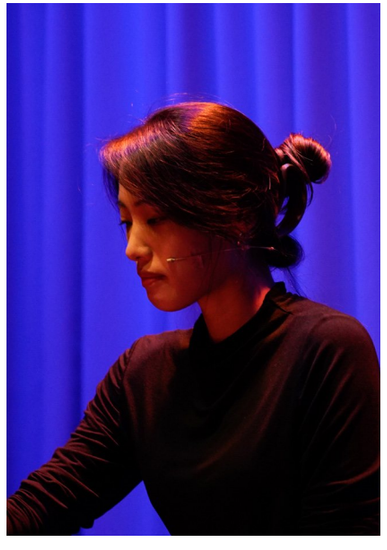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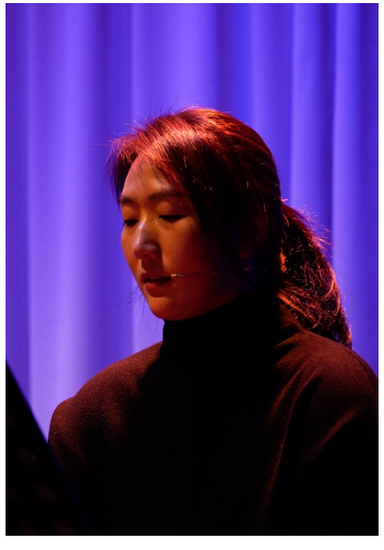
3. 공모프로그램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강독과 낭독 사이 : 관계의 가능성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6:00 ~ 17:30
장소	파랑새극장
관련 키워드	#희곡 #낭독 #연극 #관계 #해석
참여자	공공연희:옥민아(극작가) 조승엽(음악감독) 김선기(배우) 권미나(배우)
참여자 소개	**옥민아(극작가)** -희곡 [딥씨베이비, 월간소년, 호모디페랑스, 극장의 가랑이] 등을 쓰고 연출하였다. **조승엽(음악감독)** -연극 [호모디페랑스, 극장의 가랑이] 음악감독 **김선기(배우)** -연극 [생활풍경, 공주들, 호모디페랑스, 극장의 가랑이] 등에 출연하였다. **권미나(배우)** -연극 [생활풍경, 공주들, 파란나라, 이갈리아의 딸들] 등에 출연하였다.
기획의도	희곡은 문학의 한 장르이지만 시, 소설을 읽듯 희곡을 접하는 경우는 드물다. 희곡을 읽고 연극을 관람해 본다면 육체를 얻게 된 글의 변신, 행간이 가지는 힘에 놀라게 될 것이다. 납작했던 글이 살아 움직이는 광경은 희곡과 무대, 그 '둘 사이'에서 벌어지는 마법이다. 관계에 오해가 쌓이는 이유는 타인의 진의를 놓친 순간 시작되는 오역 때문일 테다. 타인(으로서의 희곡)의 진의가 얼마나 다채로운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오역(으로서의 공연)의 경험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담긴 2인극 희곡을 두 배우가 활자로서 읽는다. 연기가 가미된 낭독이 아닌 강독에 가까운 글 읽기다. 관객은 대사의 의미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곧, 관객의 손에 들린 희곡은 회수되고 강독되었던 희곡이 공연된다. 배우의 표정과 말투, 눈빛과 몸짓. 목소리의 높낮이와 언어의 행간. 강독이 공연이 되는 순간, 관객은 희곡의 진의를 파악하게 된다. 희곡은 문자인 채로 완전하였으나 그 문자가 한 인간을 관통하여 소화되는 찰나, 희곡은 훼손되고 그러므로 아름답게 완성된다.
관객 수	사전 20명 | 현장 1명 | 총 21명







3. 공모프로그램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사물의 생애사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2:00 ~ 13:30
장소	까페 창비 (001 스테이지 예정이었으나 팀 내 사정으로 인해 까페 창비에서 진행됨)
관련 키워드	#기후위기 #일회용품 #낭독 #제로웨이스트 #사물의 생애
참여자	사물의 생애사:최정화(소설가) 김현아(배우/사회) 유이엽(연주자)
참여자 소개	**최정화(소설가)** -소설집『모든 것을 제자리에』, 장편소설『흰도시 이야기』등이 있다. **김현아(배우/사회)** -2022 전주국제소리축제개막공연과 심청패러독스 공연의 움직임 구성 및 지도 **유이엽(연주자)** -라퍼커션 디렉터. 타악 워크숍 진행. 마포문화재단 주최 '꿈의 카니발' 등 다수 공연활동을 한다.
기획의도	애착을 가지고 오래 사용한 물건에 대한 에세이를 이면지에 필사해보고 함께 모여 낭독하는 시간을 통해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기후위기 시대에 삶의 지혜를 나눈다. 나와 사물, 둘 사이의 관계는 '돈을 주고 사고 쓰고 버리는'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 소비를 넘어서 '애착과 추억이 깃든' 하나의 관계임을 되새기는 낭독회가 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일회용품이 넘쳐나는 시대, 버리지 않고 오래 쓰는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낭독회 '사물의 생애사'를 개최한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 글을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시민들은 그 글을 이면지에 필사해오고, 준비팀은 글과 어울리는 음악, 음향을 준비한다. 까페에 작은 무대를 만들어 발표회를 진행해 기후위기 시대 무분별한 소비를 거스를 지혜로운 삶을 나눈다. 낭독회 전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소설가의 짧은 소설을 낭독형식으로 발표하고, 낭독회 후에 재활용품을 활용한 타악기 연주 미니워크샵을 진행한다.
관객 수	사전 0명 | 현장 20명 | 총 20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애도하는 시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6:00 ~ 17:00
장소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관련 키워드	#애도 #세계 #우리 #사랑 #미래
참여자	창작동인 뿔:최지인(시인) 양안다(시인) 최백규(시인)
참여자 소개	**최지인(시인)** -『나는 벽에 붙어 잤다』『일하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동인 시집『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 **양안다(시인)** -2014년《현대문학》등단. 시집『숲의 소실점을 향해』, 동인 시집『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 등. **최백규(시인)** -2014년《문학사상》신인문학상. 시집『네가 울어서 꽃은 진다』, 동인 시집『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
기획의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문학에 스며들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죽음은 삶의 문제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냅니다. 미래의 분명한 사건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역설을 빌려 '세계'와 '우리' 사이의 아득한 틈을 메우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눈을 감으면 창틀에 서 있는 내가 보였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애도하는 시」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낭독회입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곧 지나갈 거라고."
관객 수	사전 18명 | 현장 2명 | 총 20명





3. 공모프로그램

3-2
장소 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대학로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MZ세대 시인들의 일일 예능, <문BTI> 상담 토크쇼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무대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6:00 ~ 17:30
장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관련 키워드	#세대 #시 #낭독 #다양성 #소통
참여자	아는사람:한소리(시인/사회) 김선오(시인) 김연덕(시인) 신이인(시인) 차유오(시인)
참여자 소개	**한소리(시인/사회)** -문화예술 웹진 아는사람을 운영하며, 시와 산문을 쓴다. 에세이『우리끼리도 잘 살아』가 있다. **김선오(시인)** -시인. 시집『나이트 사커』,『세트장』이 있다. **김연덕(시인)** -2018년 대산대학문학상으로 작품 활동 시작. 시집『재와 사랑의 미래』, 산문집『액체 상태의 사랑』이 있다. **신이인(시인)** -시인.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공저한 책으로『시소 첫 번째』가 있다. **차유오(시인)** -시인. 2020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기획의도	각기 다른 mbti 유형을 가진 시인들이 모여 '둘 사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와 연관된 작품을 낭독하며, 자칫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를 환기하며 이끌어간다. 또, 사전에 접수받아 선정된 참여자들의 사연을 함께 읽고 공감하며 조언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넓은 시각으로 참여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레이블링 게임이 유행하는 요즘,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MZ 시인들은 어떤 mbti를 갖고 있을까? 또, 유형별로 나눈 시인들은 '정말로' 조금씩 다를까? mbti가 각자 다른 시인들이 모여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일 예능 프로그램. '둘 사이'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작품에 대해 말하는 시간 또한 가지면서, 중간중간 시인의 낭독으로 분위기를 환기한다. 또, 사전에 접수받아 선정한 사연을 함께 읽으며 고민 타파 조언 시간을 갖는다. 사연이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선물로 mbti 작가별 추천하는 도서 증정까지! MZ세대 시인 김선오, 김연덕, 신이인, 차유오. 각기 다른 그들의 흥미로운 토크가 시작된다.
관객 수	사전 10명 | 현장 4명 | 총 14명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고양이와 나 사이에서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7일(월) 18:30 ~ 20:30
장소	킁킁도서관
관련 키워드	#고양이 #나 #도서관 #고양이-길고양이 #인간-동물 관계
참여자	행복하자야옹:박진경(시인/사회) 서유진(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대표) 김하연(사진작가)
참여자 소개	**박진경(시인/사회)** -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학 부문 연구생(2022. 11. AnA, 은행나무 출간 예정), 시인, 동시인 **서유진(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대표)**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길고양이보호협회 대표 **김하연(사진작가)** -길고양이 전문 사진작가 찰카기, 사진전 다수 개최
기획의도	“고양이와 나” 사이에 놓인 세계를 김혜진의 소설 <3구역, 1구역>의 안과 밖에서 들여다본다.
프로그램 내용	김혜진의 소설 <3구역, 1구역>에서는 철거 예정인 3구역 세입자인 “나”와 공인중개업을 하는 “너”와의 관계가 “길고양이”로부터 형성된다. 둘 사이(나와 너)의 관계는 알아감의 과정에서 개인이 처한 “계급적 위치”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관계가 얽힘에 따라 계급적 격차가 공간 문제로 발생하고, “관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둘 사이에 놓인 길고양이에 대한 공동 돌봄의 가능성”을 묻는다.
관객 수	4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거북이와 플라스틱
프로그램 유형	무대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9:00 ~ 20:30
장소	쿠바왕
관련 키워드	#환경과 문학 #청년시인 #플라스틱 #거북이 #싱어송라이터
참여자	아트포그린:서윤후(시인) 슬라이드로사(가수) 안지(가수)
참여자 소개	**서윤후(시인)** -2018년 제19회 박인환문학상, 2009년 현대시 신인추천작품 **슬라이드로사(가수)** -2013년 1집 앨범 [Ticket To Ride]로 데뷔 2021년 "저녁구름" "The Road"싱글 발표 싱어게인2 (2021) - Top73 **안지(가수)** -밴드 데디오레디오 기타, 보컬
기획의도	'아트 포 그린'은 환경과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예술협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청년 문학 작가의 시낭송과 환경에 대한 작품소개 그리고 싱어송라이터의 공연으로 등 독자의 새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시를 통한 환경문제 고민 - 서윤후 시인의 작품속에 녹아있는 고민을 환경과 연관된 주제로 토크 진행 - 환경에 대한 토크와 시낭송을 통해 독자에게 새로운 상상력 제공 -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왔던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거북이와 플라스틱을 주제로 싱어송라이터와 이야기 2. 싱어송라이터 공연 - 시낭송과 토크 중간중간 싱어송라이터 공연을 통해 시와 음악적 감성 교류
관객 수	6명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소설가와 소방관의 만남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4:00 ~ 15:00
장소	나주 소방서 대강당
관련 키워드	#소방 #소방관 #소방유가족#테마소설 #위로와공감
참여자	동인아시아:박지음(소설가) 권제훈(소설가) 도재경(소설가) 이준희(소설가) 장성욱(소설가) 추현동(소방관)
참여자 소개	**박지음(소설가)** -소설집『네바 강가에서 우리는』, 테마집『나 거기 살아』(공저), 『여행시절』(공저)이 있다. **권제훈(소설가)**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 우수상을 수상해『여기는 Q대학교 입학처입니다』를 펴냈다. **도재경(소설가)** -소설집『별게 아니라고 말해줘요』가 있다. 심훈문학상, 허균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이준희(소설가)** -새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도 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장성욱(소설가)** -소설집『화해의 몸짓』이 있다. **추현동(소방관)** -전라남도 나주 소방관
기획의도	소방관과 유가족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소방관의 이야기를 취재하며, 자료를 조사했던 작가의 경험과 실제 소방관의 현장 경험을 서로가 나누는 대담의 자리이다. 문학 하는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얼마나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가. 매일 우리를 구하려고 불로 뛰어들고, 응급의 상황에 달려오는 소방관의 세계를 그분들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소방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자리이다. 박지음 작가를 비롯한 네 명의 소설가와 한 명의 소방관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담한다.
관객 수	46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식탁에서 쓰는 편지 : 소설과 현실 사이, 당신의 안부를 묻다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9:00 ~ 21:00
장소	북텐츠
관련 키워드	#현대소설 #소설속인물 #실패의경험 #음식 #편지쓰기
참여자	기억과 부엌사이:김미양(작가/사회) 이준엽(시인)
참여자 소개	**김미양(작가/사회)** -에세이집『입가에 어둠이 새겨질 때』 출간했으며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음식과 문학을 결합한 인문프로그램 '우리들의 부엌 동화'를 진행 중이다. **이준엽(시인)** -'문학고을'에 제35회 시인으로 등단했다.
기획의도	소설을 읽다 보면 유독 한 인물에게 눈길이 머물 때가 있다. 그 인물이 나,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를 닮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소설과 현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부엌에서 편지쓰기'를 제안한다. 소설 속 음식을 요리해 맛보고 '그'의 안부를 묻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나' 자신에게 필요했던 위로의 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김애란의 단편소설 「건너편」에는 실패를 경험해본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법한 인물 '이수'가 등장한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이수'는 연인 '도화'와 함께 섬초시금치를 먹는데, 이때 '섬초시금치' 이미지는 회색빛 도시에서 생기를 잃어가는 존재로서의 '이수'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에선 꿈과 현실 사이에서 좌절하고 방황했던 2039 청년세대 열 명 내외를 초대하고자 한다. 먼저 「건너편」이라는 작품을 대담 형식으로 소개하고, '이수'에게 쓴 편지글을 낭독해 들려줄 것이다. 이후 독자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펼쳐진다. 섬초시금치를 직접 다듬고 손질한 뒤 따끈한 된장국을 함께 끓여 맛보며, 소설 속 인물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관객 수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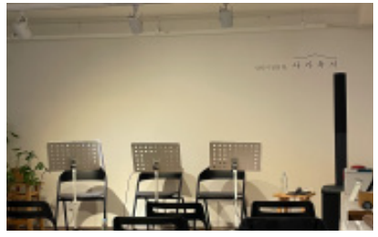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여자 셋이 모여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9:00 ~ 20:30
장소	시집서점 위트앤시니컬
관련 키워드	#작가 #독자 #사이 #시 #깨뜨리기
참여자	여자 셋이 모여:김리윤(시인) 정재율(시인) 조해주(시인)
참여자 소개	**김리윤(시인)** -시집『입가에 어둠이 새겨질 때』투명도 혼합 공간』이 있다 **정재율(시인)** -시집『몸과 마음을 산뜻하게』가 있다. **조해주(시인)** -시집『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가벼운 선물』이 있다.
기획의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관용구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왔다. 여성 시인 셋이 모여'깨진다'는 동사를 '깨뜨린다' 로 고쳐써본다 각각의 작품들 가운데 깨뜨린다 는 이미지가 드러난 시를 낭독하고 각자 자신의 무언가를 깨뜨려본 독서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독자는 "무언가 깨뜨려본 경험이 있나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라는 설문에 응답하고 출연자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대담을 나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시에 대한 어려움을 깨뜨리는 경험이 될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	시인 김리윤 정재율 조해주는 '깨뜨린다'는 공통주제로 선별한 각자의 시를 나누어 읽고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시를 창작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독자인 동시에 작가이다. 독자와 작가 사이의 경계를 깨뜨리는 시도로써 읽은 시와 이에 영향을 받아 새로 쓴 시를 한 자리에서 나누어 읽는다. 행사에 참여하는 독자들에게 사전에 관념 사물 무엇이든 '자신이 깨뜨려본 것' 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써주기를 요청한다..그리고 세 명의 시인은 독자들이 써준 응답과 어울리는 시를 골라 낭독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이를 통해 시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어려움을 깨뜨리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관객 수	23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관계·사랑·성 글쓰기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1월 10일(목), 11월 11일(금) 19:30 ~ 22:00
장소	신여성
관련 키워드	#관계 #사랑 #성 #즉흥글쓰기 #여성
참여자	신여성:배민정(작가) 정다이(작가) 배인경(작가)
참여자 소개	**배민정(작가)** -글 쓰는 여성들의 공유 공간 <신여성> 대표 / 에세이『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아내라는 이상한 존재』저자 **정다이(작가)** -뮤지컬 <미스대디>, <우주달링>, <선데이 웨이브>, <판타스틱 엑시트> 작가 **배인경(작가)** -2020년 서울 문화비축기지 '글로벌 위크' 선정작 <기상 예보 라이브>, 서울 국제 대안 영상 예술 페스티벌, 뉴욕 Lift-Off 필름 페스티벌 선정작 <파이어 하트> 기획 및 제작
기획의도	여성이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관계, 사랑, 성에 대한 경험을 글로 쓰고 나누는 워크숍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글로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소리 내서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이 공통의 경험을 발견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회복하고, 심리적 지지와 치유 효과를 얻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내용	이 워크숍은 한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쓸 때 장벽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들은 이유는 비슷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봐. 집단에서 타자로 취급하고 배척할까 봐 두렵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보다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이든 써도 된다는 안전한 분위기, 자신의 이야기에 읽는 이들이 공감한다는 확신, 내면의 자기 검열이 작동하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집중을 유도하는 글쓰기 방식.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글쓰기와 낭독이 결합된 워크숍을 기획했습니다. 진행 방식: * 1회 워크숍 <나의 관계 글쓰기> 내가 삶에서 경험한 관계에 대해 글 쓰는 시간입니다. * 2회 워크숍 <나의 사랑 글쓰기> 나의 사랑(성애)의 경험에 대해 글 쓰는 시간입니다. * 3회 워크숍 <나의 성 글쓰기> 나의 성(섹슈얼리티)에 대해 글 쓰는 시간입니다.
관객 수	33명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인문산책 : 다시 읽다가, 잇다가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5:00 ~ 17:30
장소	대구하루 264 작은문학관 대구문학관
관련 키워드	#대구 #근대문학 #대구문학관 #이육사 #문학산책
참여자	토핑:이지연(편집자) 김현진(작가) 이대철(퍼실리테이터) 배지연(교수)
참여자 소개	**이지연(편집자)** -어울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총괄(기후 상상, 우리동네 관광지도 만들기 등) **김현진(작가)** -현 프리랜서, 꿈이있는아이들 음악놀이센터 정서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토핑(에디터) 매거진포크 제작,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강사 **이대철(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션그룹 어울리 대표(워크숍 진행 및 문화기획 사업) -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인증 퍼실리테이터 **배지연(교수)** -도서관 지혜학교 글쓰기 주임교수
기획의도	-대구의 옛 문학 작가와 청년의 관계를 이어주는 문학 산책 프로그램 -대구 지역의 근대 문학들과 그 작가들을 탐구하고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2030 청년세대가 현재 살아가는 지역의 장소적 의의와 문학적 접근을 통한 스토리 텔링 -옛 문인들이 쓴 문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문학 작품과 청년을 연결하고, 청년들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문학의 의의 되새기기 -근대 문학 작품을 탐구하고 당대의 문학작가가 살았던 곳을 산책하며 2030 청년에게 우리 동네를 바라보는 새로운 문학적 관점과 연대의식을 높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제공하여 참여도 향상 기대
프로그램 내용	1) 사전에 문학 가까이하기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 근대 문학 관련 전문가와 대구 지역의 청년 4~6명을 모집하여, 사전에 교과서에 수록되었었던 문학 책(저항시와 소설 책)을 읽습니다. 2) 대구 문학 힐링 산책 대구 이육사 문학관과 대구 문학관을 돌아보며, 교과서 속 문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객 수	10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함께 놀당갑서양!(함께 놀다 가세요)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대담형, 무대형, 낭독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6:00 ~ 17:30
장소	카페 애옥
관련 키워드	#제주 #이주민 #첼로 #이어도 #소통
참여자	검은빵:곽윤숙(작가) 김태호(작가) 박남희(작가) 이규연(작가) 김태현(가드너) 신성옥(연주자)
참여자 소개	**곽윤숙(작가)** -작가그룹 검은빵 소속 동화작가 제주마을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 기획 및 집필 **김태호(작가)** -동화작가 대표작 '네모돼지' '제후의 선택' '엉덩이 학교' 등 **박남희(작가)** -작가그룹 검은빵 소속 동화작가 대표작 '고래포 아이들' '열두 가지 색깔 통' '우리반 장보고' 등 **이규연(작가)** -동화 작가 대표작 '정정당당 선거' '함께라서 좋아! 우리는 가족''우리반 갈릴레이' 등 **김태현(가드너)** -공간 '애옥' 대표, 제주식 정원 가드너 **신성옥(연주자)** -첼리스트, 음악교사 역임, 다수의 연주 공연
기획의도	우리는 늘 어딘가로 가서 정착을 하거나 뿌리를 내린다. 본래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둘 사이'를 좁히고 함께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특히 제주라는 특별한 지역 원주민은 배타적 성향을 띤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일상에서 만나는 '음악과 문학'을 매개로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내용	제주에는 현실에서 안주하기 보다 미래와 꿈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떻게 제주화 되었을까. 그들의 삶에서 건져낸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제주의 정원을 거닐며 시와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첼로연주를 듣는다. 환상의 섬 이어도처럼 이상향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4명의 작가들과 나누며 '함께 놀다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관객 수	23명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대면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본격 부동산 문학 토크 : 갭과 갭 사이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2:00 ~ 13:30
장소	동네서점 공독서가
관련 키워드	#부동산 #영끌 #디스토피아#기본권 #양극화
참여자	내일의집:김유담(소설가) 서경희(소설가)
참여자 소개	**김유담(소설가)** -소설집『탬버린』,『돌보는 마음』, 장편소설『이완의 자세』,『커튼콜은 사양할게요』가 있다. **서경희(소설가)** -장편소설『수박 맛 좋아』,『복도식 아파트』가 있다.
기획의도	남양주시 화도읍 동네서점 '공독서가'에서 열리는 두 명의 젊은 소설가들의 문학 토크. 부동산을 주제로 한 소설 낭독 및 대담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각자도생의 세계에서 문학의 역할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본다.
프로그램 내용	'당대의 실제적인 삶'을 직시하면서 고유의 리듬과 정동을 담아낸다는 평가를 받는 김유담과 아파트와 주거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경희, 두 명의 젊은 작가가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을 주제로 문학 토크를 나눈다.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 주거 안정 문제 등을 문학을 통해 날카롭게 직시하고, 좋은 집과 좋은 삶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의 가치에 관해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관객 수	12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문학에 깃든 : 공존과 연대 - 갈등을 넘어 평화로!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9:30 ~ 20:30
장소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관련 키워드	#평화 #전쟁 #연대 #공존 #협력
참여자	우리나비:한소원(우리나비 대표/사회) 김숨(소설가) 이수복(소설가)
참여자 소개	**한소원(우리나비 대표/사회)** -우리나비 대표이자 기획에디터이다 **김숨(소설가)** -장편소설 및 중편소설을 쓰는 작가이다. **이수복(소설가)** -아동 및 청소년 소설 작가이다.
기획의도	일본군 위안부, 하청 노동자, 디아스포라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밀려난 사람들에 대한 목소리를 작품 안에서 줄곧 들려주고 있는 소설가 김숨과 미등록이주 아동에 대한 동화와 일제강점기 역사 속에서 잊힌 여성광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청소년 소설을 집필중인 이수복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소위 '전쟁'과 '평화', '주류'와 '비주류', 등 이분법적인 둘 사이에서 김숨과 이수복의 문학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독자(관객)와 함께 문학에 깃든 이 시대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
프로그램 내용	오늘날 사회적 약자와 변방에 있는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기억과 역사 속에서 잊힌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작품을 쓰고 있는 소설가 김숨은 故 김복동 할머니의 태몽을 모티브로 한 그림책, <아이와 칼>로 2022 우수문화상품(문화콘텐츠부문)으로 지정되는 등 장르를 넘나들며 전 방위 창작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동화 <사랑의 솜사탕>, 일제강점기 여성광부를 모티브로 한 청소년 소설 <황금동굴의 편지(근간)>을 집필중인 이수복 작가의 작품 소재는 소위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 (소수자)과 소외된 사람들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갈등과 공존, 이 둘 사이에서 평화와 협력 그리고 연대의 의미를 문학으로 풀어내고 있는 김숨, 이수복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독자들이 편히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문학을 통한 공감을 나눈다.
관객 수	16명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만지詩오 : 촉각 낭독회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9:00 ~ 20:00
장소	조조공방
관련 키워드	#촉각 #타자 #도예 #서로 #시
참여자	PO(Project Object):김석영(시인) 조어진(도예)
참여자 소개	**김석영(시인)** -시집『밤의 영향권』이 있다 **조어진(도예)** -문화예술사, 현재 조조공방 운영 중
기획의도	만지시요 – 촉각 낭독회 기존의 보고(시각) 듣는(청각) 시 낭독회에서 촉각을 가미한 새로운 낭독회. 참여자가 직접 시를 들으며 흙을 만지고 촉각으로 빚어내는 시간
프로그램 내용	기존의 시 낭독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촉각 낭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를 들으면서 눈앞의 흙을 빚을 때 마치 암흑 속에서 만지기라도 하듯 시각이 촉각으로 변화됩니다. 참여자는 시를 감상하면서 시를 만집니다. 두 손이 심상대로 빚어낸 조형물은 시의 변형물이면서 동시에 참여자의 상상이 결합된 것이기도 합니다. 촉각 낭독회는 나와 타자의 만남이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촉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가 사라지고도 오롯이 남는 건 여러분이 흙으로 빚은 시의 형태입니다.
관객 수	10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숨과 쉼 사이 문학이 스며들 때
프로그램 유형	참여형, 무대형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5:00 ~ 16:20
장소	창비부산 창작홀
관련 키워드	#숨과 쉼 #치유의 문학 #생존과 휴식 #시민이 시인 #문학수다
참여자	창작동인 어흥:한희정(진행) 박미라(작가) 이자경(작가) 안미란(작가) 김효선(시민패널)
참여자 소개	**한희정(진행)** -2008 MBC금성창작동화대상, 2022 부산아동문학상 수상,『라온미르호의 아이들』,『운동장에나타난아이들』외 **박미라(작가)** -2015 창주문학상 동화부문 수상,『오만데 삼총사의 대모험2』,『금발머리 내 동생』,『금슬이 열쇠를 찾아라』외 **이자경(작가)** -2008 황금펜아동문학상, 2021 부산아동문학상 수상,『주인공처럼 주인공답게』,『거북이가 간다』외 **안미란(작가)** -2000 창비좋은어린이책 대상, 2020 부산아동문학상 수상,『씨앗을 지키는 사람들』,『내겐 소리로 인사해줘』외 **김효선(시민패널)** -독서논술 지도사, 동화구연가
기획의도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떤 쉼이 좋은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단절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쉼이 필요한 시대, 문학을 매개로 숨을 고르고 쉼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민들은 어떤 쉼을 바라는지, 자신의 쉼은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문학을 통해 치유의 쉼을 경험한다.
프로그램 내용	1. 관객과 소통하며 작가, 시민이 패널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문학 토크쇼 2. 그림책 '잃어버린 영혼' 읽기 3. 사전 조사한 설문을 바탕으로 관객과 소통 ('숨 가쁜 일상'과 '숨 고르는 힐링') 4. 관객들이 쉼을 주는 문학책 발표 5. 패널들이 추천하는 문학책과 토크 6. 관객 낭독과 공감
관객 수	18명





3. 공모프로그램

3-3
장소 비지정형
세부 프로그램
전국 단위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글 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9:00 ~ 20:00
장소	언제라도 여행 카페
관련 키워드	#여성 #우정 #에세이 #연대 #문학
참여자	2W:홍아미(진행) 박성혜(작가) 조은영(작가) 조혜란(작가)
참여자 소개	**홍아미(진행)** -2W매거진 발행인, 저서『미치도록 떠나고 싶어서』『지금, 우리, 남미』등 **박성혜(작가)** -저서『알로하 파라다이스』『글쓰기는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등 **조은영(작가)** -저서『이순간의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조혜란(작가)** -저서『글 쓰는 전업주부의 사생활』『얼떨결에 엄마라니』
기획의도	"2W"는 글 쓰는 여자들(Writing Women)의 커뮤니티입니다.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어떤 접점도 없지만 함께 에세이를 쓰며 문학을 향유해 온 여성들이 "함께 쓰는 힘", "여성 창작자끼리의 연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함께 쓰는 힘 문학주간 스테이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글쓰는 여자들의 에세이 파티를 진행하고자 함. 도서 낭독과 더불어 올해 함께 꾸준히 쓰면서 책 출간에 성공한 작가들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제는 "함께 쓰는 힘"을 이야기한다. 홍아미 (2W발행인 겸 작가), 박성혜(여행 작가, 에세이 작가), 조은영(에세이 작가), 조혜란(에세이 작가) 출연.
관객 수	27명





3-4
공모프로그램
심사 총평

심의위원	박영신 (문학동네출판사 논픽션 부서장) 손문경 (아침달 출판사 대표) 양경언 (문학평론가) 양연식 (인문360 기획위원장) 최치언 (극단 상상두목 대표)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프로그램 공모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2022년 9월 30일(금) 10:00~12:00, 대학로 문학나눔 사무실

심의 총평

2022년 문학주간 스테이지 주제는 '둘 사이'이다. 이 주제는 무대와 객석, 쓰는 이와 읽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문학을 매개로 일어나는 낯설고도 흥미로운, 수상하면서도 호기심어린, 집중적이고도 확장적인 경험을 통해 '공감', '연대', '공동체'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모색하도록 마련되었다.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독자친화성', '적합성' 및 '효과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총 45건(비지정형 32건, 지정형 1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5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를 먼저 진행하였고, 이를 수합 및 정리하여 나온 내용을 가지고 대면 회의 방식을 거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비지정형의 경우 13건, 지정형 7건, 총 20건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기획서 내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과 방향성을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표현하였는지, '둘 사이'라는 주제에 맞춤하여 문학 향유자들의 능동성을 역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였는지, 해당 내용이 실현될 때의 상이 실질적으로 그려지는지 등이었다. '둘 사이'라는 주제에서 '둘'이란 표현에만 집중하다가 '사이'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 역시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각각 매겼던 평가 점수를 합산했을 때 상위권인 점수의 제안서들 가운데에서도 일부 지역이나 단일한 장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고자 하였다. 단, '지정형'의 경우 시 장르 분야의 지원이 특히나 많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시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다.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낭독'에 한정되어 있는 기성 문학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둘 사이'라는 주제에 맞춰 작가와 독자 사이가 인터렉티브하게 이뤄질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력을 보여주었다. '문학' 활동의 기본 요소인 '읽기'와 '쓰기'가 더 확장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읽기와 쓰기를 넘어선 활동이 개발될 가능성 등이 이들 프로그램에서 기대된다. 이번 문학주간 스테이지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문학에 대한 벽을 허물고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길 바란다. 그 과정을 통해 문학이 더 나은 공동체를 형성해나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선정된 이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4. 협력프로그램

4-1
구성

기관명	프로그램명	일시	관객 수		
			사전	현장	총
202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문장의 소리 in 문학주간>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 공개방송	11월 7일(월) 14:30	11	0	11
202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November 8 Prism: 8인 작가들이 낭독하는 8개의 빛	11월 8일(화) 14:00	14	6	20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작가는 처음이지?" : 작가 - 저작권 '둘 사이'	11월 9일(수) 14:00	4	2	6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작가는 처음이지?" : 출판사 - 저작권 '둘사이'	11월 10일(목) 14:00	3	0	3
(주)문학과지성사	『시 보다』로 떠나는 詩間여행 : 일곱 시인이 보여주는 한국 시의 빛 나는 현재와 미래	11월 10일(목) 12:00	3	4	7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비인간과 문학예술	11월 11일(금) 14:00	6	7	13
2022년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		11월 7일(월) ~ 11월 11일(금)	358		



4. 협력프로그램

4-2
세부프로그램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문장의 소리 in 문학주간> 문학분야 선정자 특집 - 공개방송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협력기관	202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진행 일시	11월 7일(월) 14:30
장소	001스테이지
참여자	이영주(시인/사회) 권혜영(소설가) 성해나(소설가) 송재영(소설가) 이선진(소설가) 장진영(소설가) 정대건(소설가) 박진경(시인) 조온윤(시인)
참여자 소개	**이영주** -2000년『문학동네』로 등단했으며, 시집『108번째 사내』,『언니에게』,『차가운 사탕들』,『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여름만 있는 계절에 네가 왔다』가 있다. 루시엔 스트릭상(2022)을 수상했으며, 2022년 4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학 전문 팟캐스트 〈문장의 소리〉 진행을 맡고 있다. **권혜영** -2020년『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문장의 소리〉 구성작가를 맡고 있다. **성해나** -2019년『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소설집『빛을 걷으면 빛』,『소돔의 의로운 혈육들』이 있다. **송재영** -필명 '타라재이'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 소설『두 번의 눈물, 모두의 하이파이브』가 있다. **이선진** -2020『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했다. **장진영** -2019년『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하여, 소설집『마음만 먹으면』, 장편소설『취미는 사생활』이 있다. **정대건** -2020년 장편소설『GV 빌런 고태경』을 출간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아이 틴더 유』가 있다. **박진경** -2017『실천문학』 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매일신문』 신춘문예 동시 「악수」가 당선되었다. **조온윤** -2019년『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시집『햇볕 쬐기』가 있다

구분	내 용
프로그램 내용	문학광장 〈문장의 소리〉는 2005년 시작된 인터넷 문학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700여 명의 작가가 초대손님으로 다녀갔다. 연출과 진행, 구성작가 모두 현직 작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4월부터 이영주(시인, 진행), 김봄(소설가, 연출), 최지은(시인, 구성작가), 권혜영(소설가, 구성작가)이 함께한다. 지금까지의 방송은 문학광장 누리집과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클립을 통해 들을 수 있다.
관객 수	사전 11명 | 현장 0명 | 총 11명



4. 협력프로그램

4-2
세부프로그램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November 8 Prism : 8인 작가들이 낭독하는 8개의 빛
프로그램 유형	낭독형
협력기관	2022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진행 일시	11월 8일(화) 14:00~15:30
장소	파랑새극장
참여자	조대한(문학평론가/사회) 권혜영(소설가) 성해나(소설가) 송재영/소설가) 이선진(소설가) 장진영(소설가) 정대건(소설가) 박진경(시인) 조온윤(시인)
참여자 소개	**권혜영** -1987년 출생. 2020년『실천문학』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앤솔러지 소설집『소설 보다 가을 2021』 **성해나** -1994년 출생. 2019년『동아일보』신춘문예 중편「오즈」로 작품 활동 시작. 소설집『빛을 걷으면 빛』 **송재영** -1983년 출생. 2014년 부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중.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알렉산드리아 뇌』연재 중 **이선진** -2020년『자음과모음』을 통해 소설 발표하기 시작. 창작동인 '애매(愛枚)'로 활동 중 **장진영** -1990년 출생. 2019년 자음과모음 신인문학상 소설 당선. 소설집『마음만 먹으면』 **정대건** -1986년 출생. 장편소설『GV 빌런 고태경』소설집『아이 틴더 유』출간 **박진경** -1988년생. 2017년 실천문학사 시 부문 신인문학상 수상하며 작품 활동 시작 **조온윤** -1993년생. 2019년『문화일보』신춘문예 시 부문「마지막 할머니와 아무르 강가에서」로 작품 활동 시작 **조대한** -2018년『현대문학』신인추천에 당선되어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계간『자음과모음』,『파란』의 편집위원 일을 함께하고 있으며 서울예대 등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8인 작가들이 낭독하는 8개의 빛.
관객 수	사전 14명 | 현장 6명 | 총 20명





4. 협력프로그램

4-2
세부프로그램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작가는 처음이지?" : 작가 - 저작권 '둘 사이'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협력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진행 일시	11월 9일(수) 14:00~16:00
장소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참여자	손수호(교수)
참여자 소개	**손수호(교수)** -국민일보 문화부장 및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책을 만나러 가는 길』, 『문화의 풍경』등의 저서가 있으며, 『복지저널』 편집위원이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 분야 작가, 출판 관계자들이 저작권 전문가, 저작권 상담관과 함께하는 '저작권 라운드 테이블'
관객 수	사전 4명 | 현장 2명 | 총 6명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문학분야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 "작가는 처음이지?" : 출판사 - 저작권 '둘사이'
프로그램 유형	공연형
협력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4:00~16:00
장소	시집서점 위트 앤 시니컬
참여자	김기태(교수)
참여자 소개	**김기태(교수)**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국출판학회 연구이사, 롯데출판문화대상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프로그램 내용	문학 분야 작가, 출판 관계자들이 저작권 전문가, 저작권 상담관과 함께하는 '저작권 라운드 테이블'
관객 수	사전 3명 | 현장 0명 | 총 3명





4. 협력프로그램

4-2
세부프로그램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시 보다』로 떠나는 詩間여행 : 일곱 시인이 보여주는 한국 시의 빛나는 현재와 미래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협력기관	㈜문학과지성사
진행 일시	11월 10일(목) 12:00
장소	마로니에 야외공연장
참여자	강동호(문학평론가/사회) 신이인(시인) 안태운(시인) 윤은성(시인) 윤혜지(시인) 임유영(시인) 임지은(시인) 조용우(시인)
참여자 소개	**강동호** -문학평론가,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문학과사회』 편집동인.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되며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신이인** -202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안태운** -201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산책하는 사람에게』가 있다. **윤은성** -2017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주소를 쥐고』가 있다. **윤혜지** -2021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임유영** -2020년 문학동네신인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임지은** -2015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무구함과 소보로』, 『때때로 캥거루』가 있다. **조용우** -2019년 중앙신인문학상 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내용	한국 시를 둘러싼 예감을 함께 나누는 작은 축제, '문지문학상' 시 부문 후보작을 묶은 『시 보다』에 이름을 올린 일곱 명의 시인이 함께하는 문학적 우정의 자리. 그들의 시를 세심하게 읽은 강동호 문학평론가의 진행으로 1, 2부에 걸쳐 시인들이 서로의 시를 함께 읽고 말하며 '시 사이'를 넘나드는, 여행 같은 토크 & 낭독회이다.
관객 수	사전 3명 | 현장 4명 | 총 7명







4. 협력프로그램

4-2
세부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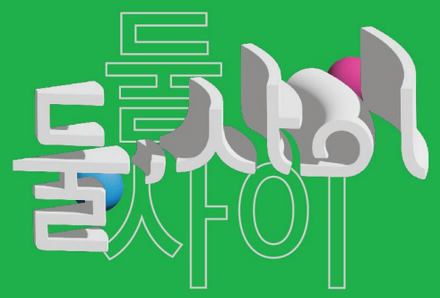
구분	내 용
프로그램명	비인간과 문학예술
프로그램 유형	대담형
협력기관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진행 일시	11월 11일(금) 14:00~15:30
장소	001스테이지
참여자	김남혁(문학평론가/사회) 고봉준(문학평론가/발표) 김대현(문학평론가/발표) 오형엽(문학평론가/토론) 홍용희(문학평론가/토론)
참여자 소개	**김남혁**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 **고봉준**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 **김대현** -문학평론가, 현재 민족문학연구소 연구원 **오형엽**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 **홍용희** -국문학자, 문학평론가,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프로그램 내용	한국문학비평의 새로운 영역과 기능을 "비인간과 문학예술"이라는 기획 주제 아래 네 명의 평론가들과 함께 검토해 본다. 근래 팬데믹 이후로 더욱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미래의 변화를 문학을 통해 살펴본다. 이로써 인간 중심주의의 사유 지평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와 존재의 경계를 재고해본다.
관객 수	사전 6명 | 현장 7명 | 총 13명







문학주간2022 들,사이



III. 결과 및 제언

1. 만족도 조사

2. 평가 및 제언
   - 2-1. 사업 평가
   - 2-2. 운영위원 제언

3. 참여 관객 후기

1. 만족도 조사

1-1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문학주간 2022 축제 관람객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라인상에 프로그램하여 PC와 모바일로 접속 후 설문에 참여하는 온라인 조사
조사표본	752명
조사기간	2022년 11월 07일 ~ 2022년 11월 14일

1-2 내용

구 분	내 용
문학 주간 정보 취득 및 방문 관련	- 사전 인지 여부 - 정보 습득 경로 - 참여 계기 - 문학주간 행사 참여 경험 -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
운영 관련 평가	- 문학주간 2022 주제의 적절성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행사 홍보의 우수성 -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 다른 책 축제와의 차별성
프로그램 내용 평가	- 행사 주제의 적절성 - 참석한 패널의 적합성 -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인 우수성 - 진행 장소와 공간 구성의 적합성
문학 주간 사업 평가	-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 - 문학에 대한 관심 - 향후 축제 참여 의향
전반적인 만족도	- 문학주간 2022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기타	- 문학주간 2022 에 대해 좋았던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의견

1-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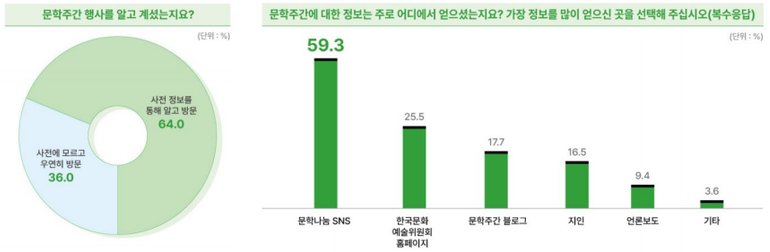
전체		사례수	Base for %
전반적 만족도		752	100.0
성별	남성	315	41.9%
	여성	424	56.4%
	응답하고 싶지 않음	13	1.7%
연령	10대	10	1.3%
	20대	222	29.5%
	30대	276	36.7%
	40대	185	24.6%
	50대 이상	59	7.8%
직업	초중고생	7	0.9%
	대학생/대학원생	139	18.5%
	직장인 및 자영업	473	62.9%
	주부	54	7.2%
	무직	50	6.6%
	기타	29	3.9%
거주지역	서울	618	82.2%
	서울 외 지역	134	17.8%
축제 사전 인지여부	인지	481	64.0%
	비인지	271	36.0%
축제 참여 빈도	최초 참여	575	76.5%
	2-3회 참여	149	19.8%
	4-6회 참여	20	2.7%
	매년 참여	8	1.1%
축제 참여전 관심 프로그램 (복수응답)	문학주간 스테이지 (낭독회, 대담, 공연 등)	555	73.8%
	협력 스테이지 (유관기관, 협회 등)	266	35.4%
	야외전시	200	26.6%
	개막식	139	18.5%
	폐막공연	91	12.1%
	기타	3	0.4%
축제 참여후 만족 프로그램	문학주간 스테이지 (낭독회, 대담, 공연 등)	475	63.2%
	협력 스테이지 (유관기관, 협회 등)	119	15.8%
	야외전시	99	13.2%
	개막식	38	5.1%
	폐막공연	20	2.7%
	기타	1	0.1%

1. 만족도 조사

1-4 조사 결과

사전 인지 및 정보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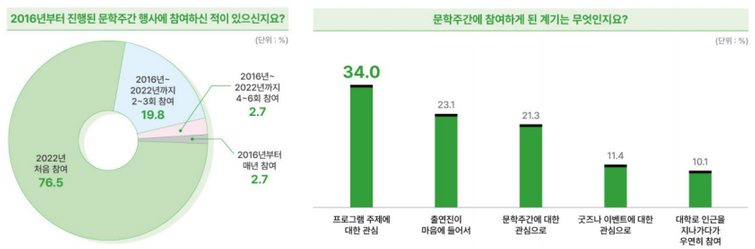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n=752), Unit: %]



- 문학주간 축제 사전 인지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N=752) 중 64%는 사전 축제 개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
- 문학주간에 대한 정보 취득 주요 경로로는 '문학나눔 SNS'라는 응답이 59.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홈페이지(25.5%), 문학주간블로그(17.7%), 지인(16.5%) 언론보도(9.4%)의 순으로 나타남.

참여 계기 및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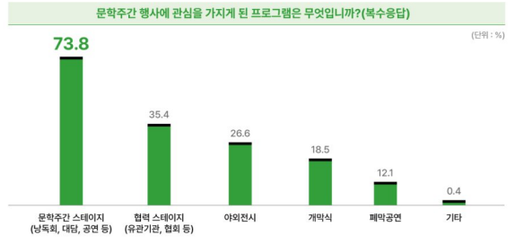
[Base: 전체 응답자(n=752), Unit: %]



- 문학주간 축제 참여 주요 계기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3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연진이 마음에 들어서(23.1%)', '문학주간에 대한 관심으로(21.3%)'의 순으로 나타남.
- 문학주간 축제 참여 빈도를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올해 처음 참여한 응답자(76.5%)로 나타남. 올해를 제외하고 2-3회 참여한 응답자는 19.8%, 4-6회 참여한 응답자는 2.7%, 2016년부터 매년 참여한 응답자는 1.1%로 나타남.

관심프로그램 (중복응답)

[Base: 전체 응답자(n=752), Unit: %]



- 문학주간 축제 내 관심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문학주간스테이지(낭독회, 대담, 공연 등)'라고 응답한 비율이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협력 스테이지(유관기관, 협회 등)(35.4%)', '야외전시(26.6%)', '개막식(18.5%)'의 순으로 나타남.
- 문학주간 스테이지라는 응답은 성별로는 여성(79.7%), 연령별로는 20대(81.5%)와 50대 이상(86.4%), 직업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82.0%), 거주지별로는 서울 이외 지역(기타 : 7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협력 스테이지라는 응답은 성별로는 남성(39.0%), 연령별로는 30대(45.7%), 직업별로는 주부(42.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세부 항목별 평가 - 운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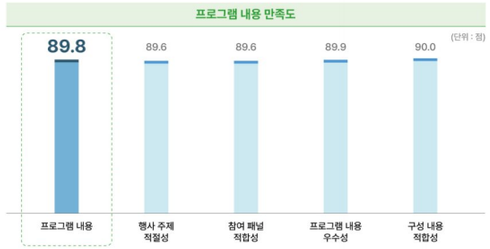


- 문학주간 축제에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는 '행사운영', '행사홍보', '공간구성 적절성', '차별성' 이 있음.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체 만족도 점수는 86.7점임.
- 세부 항목 중에는 '행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88.5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간구성 적절성', '차별성', '행사 홍보' 순으로 나타남.
- 운영적인 측면에서 행사 홍보 관련 항목의 경우 타 항목 대비 점수가 낮게 나타남.

1. 만족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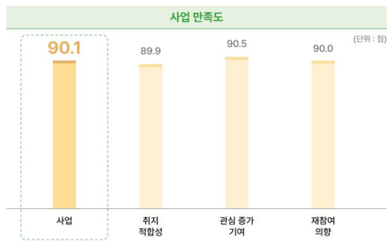
1-4
조사 결과

세부 항목별 평가 - 프로그램 측면



-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행사 주제 적절성', '참여 패널 적합성', '프로그램 내용 우수성', '구성 내용 적합성'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 내용 차원에서는 구성 내용 적합성이 90.0점으로 가장 높았음.
- 구성 내용 적합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96.3% 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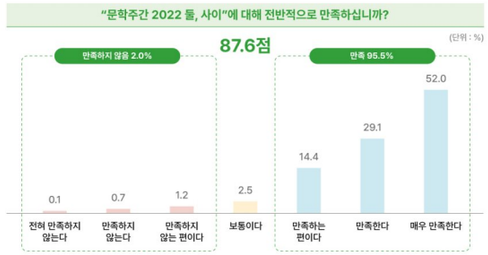
세부 항목별 평가 - 사업 측면



- 사업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은'취지 적합성', '관심 증가 기여', '재참여 의향' 이 있음.
- 사업에 대한 항목 중에서 '관심 증가 기여' 가 90.5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관심 증가 기여' 항목에서 문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응답은 96.3%로 나타남. (그런 편이다 : 9.0% + 그렇다 : 26.2% + 매우 그렇다 : 61.0%)
- '취지 적합성 만족도'에서 직업별로 보았을 때 대학생/대학원생의 만족도가 92.9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종합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Base: 전체 응답자(n=752), Unit: %]



- 문학주간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만족도 점수는 87.6점임.
-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95.5%로 나타남. (그런 편이다 : 14.4% + 그렇다 : 29.1% + 매우 그렇다 : 52.0%)

구분	세부 항목
운영	장소가 협소했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도 개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 프로그램이 많아 참여하기 힘들어요
	질문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안내원들과 진행팀의 친절한 환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용	구성이나 출연진이 너무 좋아요... 허희평론가님하고 한강 작가님 다 뵐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다양한주제와 새로운 시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노래서점. 문BTI. 폐막 낭독극봤어요. 각기 색다른 매력의 출연진들 자체가 문학 그 자체!
	장강명낭독회참여했는데 사회자, 작가, 독자의 하모니가 좋았습니다
	창작동인 팀 분리수거에 참여했는데, 구성이 너무 좋았고 흥미로운 행사였고, 참여자들의 적극성이 돋보였습니다
사업	평상시 대면이 어려운 작가들을 한자리에 만나서 좋았고 기술변화와 문학 사이를 잇는 AI 주제는 너무 참신한 주제였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꼭 열어주세요.
	실시간 소통과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쌍방향 컨텐츠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 전공자로서 문학주간 항상 관심 있었는데 올해가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유튜브 등 영상채널에서 다시 보고 싶어요
	취지와 컨텐츠가 정말 좋았습니다!
홍보	다음에는 웹툰 형식의 콘텐츠 만들어 홍보해주세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더 되었으면 합니다!
	홍보를 더 많이하면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온오프라인으로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말을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티저가너무 신선했어요. 뜻깊은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2023 다음번행사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2. 평가 및 제언

2-1 사업평가

문학주간 2022 평가 및 제언

행사 시기의 정례화 및 전략적인 프로그램 구성 필요

그간의 문학주간 행사 개최일이 주로 9월 1~2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문학주간 행사는 다소 늦게 개최되었다. 올해 행사 기간 날씨는 10월 중순 정도로 따뜻했지만, 평년의 기온은 평균 4도에서 15도 분포이고 해지는 시간도 빨라 야외행사에 좋지 않은 시기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사 진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통해 상반기에 미리 장소 및 일정을 확보하고 행사 시기를 정례화하면 참여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33개의 프로그램 간 참여자 수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수를 축소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독립적이고 일원화된 홍보채널 활용 필요

사업의 주요 홍보채널로 문학나눔 인스타그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였고, 대다수 참가자가 두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는 등 실제 홍보 도달률이 높았다. 하지만 두 채널 모두 문학주간의 정보를 단독으로 전달하는 채널이 아니라 다른 정보와 함께 산발적으로 수록되어 정보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정보제공의 일원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차 년도 사업 진행 시 마이크로 페이지 개설과 같은 단독 홍보 채널의 확보가 필요하다.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 확보와 공모 프로그램 성과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이번 문학주간은 상반기에 운영위원회가 시작되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적절한 기간이 확보되었으나 운영사의 선정이 늦어져 기획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할 기간은 확보되지 못했다. 운영위원회 구성 시기는 기존처럼 상반기에 진행하여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같은 시기에 운영사를 선정하여 기획에 따른 실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모 프로그램 또한 충분한 준비시간과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성과를 향상할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프로그램과 안전을 위한 다목적 활용공간 확보

문학주간은 대담, 강연, 낭독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는 낭독극 등 공연형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극장형 공간에서 진행하였으나 80명 안팎의 수용인원의 소규모 공간으로 장소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고 층계가 협소하여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여러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다수의 관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2 운영위원 제언

그리 문학이 있었다

김미월

문학주간이 끝난 후에 비로소 깨달은 사실이 있다. 문학주간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기획위원으로서 내가 문자 그대로 뭔가를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만의 말씀. 실은 문학주간이 나를 기획한 것이었다. 독자로서, 관객으로서,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나 자신을 새삼 다시 발견하도록 문학주간이 나를 초대해준 것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문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문학 없이도 삶은 흘러갔으므로 나와 문학 사이에 아무 연결점도 남아 있지 않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나와 문학 '둘 사이'는 여전히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문학주간이 일깨워준 것이다.

이를테면 좌담에서 최진영 소설가가 했던 말이 그렇다. 제주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 관객들이 제주에 대해 물을 때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방에서 글만 쓰기 때문에, 저는 방에서 글만 써요, 저는 방에서 글만 쓰거든요, 저는 방에서 글만 쓰니까.....

그 단순한 문장이 내게는 마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나라를 걱정하던 마음처럼 묵직하게 들렸다. 방에서 글만 쓰는 사람에게는 창밖이 제주건 지옥이건 상관없다. 그는 쓰고 있는 글을 통해 어디로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의 대답이 너무 명료하고 아름다워서 나는 조금 울었다.

그런가 하면 이영광 시인은 또 어떠했던가. 누군가 시를 쓸 때의 어려움에 대해 묻자 그는 대답했다. 시가 내 뜻대로 쓰인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어요. 만약 내 뜻대로 쓰이는 때가 있다면 그건 내 뜻이 이미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늘 실패하는 거지요.

뜻대로 쓰이지 않음을 알면서도 계속 쓰는 마음, 늘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아마 그 자신도 모를 것이다. 몰라도 계속 쓸 것이다.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단지 시를 쓰는(作) 사람만이 아니고 시를 하는(行) 사람이고 시를 사는(生) 사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 이런 귀한 작가들이 있어서, 동시대를 살면서 이들의 작품을 읽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당시 문학주간 현장에서 나는 생각했다. 한마디로 이것이 나의 문학주간 후기이다, 거기 문학이 있었고 그래서 행복했다는 것.

문학주간 개최를 위해 애쓰신 문화예술위원회 선생님들께, 와우컬처랩 선생님들께, 그리고 동료 기획위원들께도 온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다.

2. 평가 및 제언

2-2
운영위원 제언

'둘 사이'의 거리

백다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얼마쯤 될까?
나와 너의 거리. 당신과 우리의 거리. 쓰는 자와 읽는 자의 거리.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거리. 작가와 독자의 거리. 아무래도 2022 문학주간은 문학향유자들의 거리를 재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문학을 중심으로 무수히 존재하는 거리들을 가늠하고 확인했던 시간. '둘 사이'를 좁히기도 했고 거리를 둬보기도 했다. 지구를 덮쳤던 역병을 뒤로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약속한 올해, 2022년 문학주간은 코로나 이전의 문학과 지금 문학의 달라진 그 거리를 가늠해보는 자리로서 인식되는 시간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건 복원이었고 팽팽했던 시위를 느슨하게 풀어야 했으니까. 방 안에서 광장으로, 비대면의 공간을 대면의 장소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오프라인으로 끌어왔다. 거리는 쉽게 좁혀졌고 또 밀착했던 간극은 적절하게 멀어졌다. 무대에 서서 문학을 말하고 객석에 앉아 떠돌아다니는 문학들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문학 안으로 모여들었고 문학 밖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 같이 우리였다. '문학 하는' 우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간신히 재보는 '둘 사이'의 거리. 그럼에도 그것이 최선을 다해 문학을 정면으로 응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
2023년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하는 시간.
감지되는 미래의 문학에 대해, 예측가능한 문학의 자리에 대해, 다양한 구성과 기획들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올해 적절한 거리를 측정했으니 이제 구조물을 설계해도 괜찮을 것이다. 아름답고 충격적인 '무엇이' 문학의 도시에 새롭게 들어서게 되기를.

2022 문학주간 후기

유희경

문학주간. 내게 너무 각별한 행사. 매해 가을 나를 설레게 하는 이름. 더러는 무대 위, 때로는 객석, 가끔은 무대 뒤로 자리를 옮겨가며, 그러나 결국 같은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올해는 운영위원이란 직책을 맡아 열심으로 했고 덕분에 기쁨도 만족도 아쉬움도 진합니다. 2022 문학주간을 마치고 관계자들 한데 모여 소회를 나눈 자리에서 저는, 하여간 잘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거의 매주 만나서, 의견을 할 일을 나누고 참견하며 만들어가는 동안 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져가는 안팎의 이모저모를 관찰한 사람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문학주간이 "잘했다" 앞에 붙은 접속사를 바꿔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긍정적인 쪽으로 최상급의 수사를 더해가면서.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하찮은 당부를 덧붙입니다. '문학주간'이라는 행사가 갖는 위상이 어디 비할 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타공인 최고의 문학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정례화가 필요합니다. 성격 규정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규모를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합니다. 기대와 관심이 부풀어야 합니다. 참가와 참석이 개인의 기쁨이자 영광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함께해주신 모든 작가, 시인, 평론가 등 다양한 문학 종사자들과,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운영을 맡아주신 와우컬쳐랩, 김미월 백다흠 윤미현 허희 위원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 평가 및 제언

2-2
운영위원 제언

문학주간 "둘 사이"

윤미현

문학주간이 해마다 거대한 행사로 거듭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는 말처럼, 늘 담벼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처럼 준비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김미월, 백다흠, 유희경, 허희 운영위원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이웃처럼 무언가 무슨 일이 생기면, 슈퍼맨처럼 달려와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셨던 박헌일과 장님과 와우컬처랩 관계자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문학주간이 문학을 하는 사람과 문학을 즐기고자 하는 대중들 사이에, '문'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문'을 열고 소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이 내년에는 더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2022년 문학주간 "둘 사이"의 문을 닫습니다.

감사와 보람을 합친 말 : 2022 문학주간 운영위원 활동을 마치며

허희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학주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올해 내가 경험한 사건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기억에 남는 일이다. 문학주간 콘셉트부터 세부 일정까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물론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함께 한 분들이 마음을 모아준 덕분에 난관을 헤쳐 올 수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분들—정대훈 부장님, 박헌일 과장님, 최정은 주임님 등과 운영업체 와우컬처랩 담당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무엇보다 운영위원으로 같이 힘쓴 백다흠, 윤미현, 김미월, 유희경 님께도 경의를 표한다. 선생님들 덕분에 문학주간 회의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여러 책 관련 축제가 열린다. 서울국제도서전, 파주북소리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문학에 특화된 형태로 개최되는 책 관련 축제는 문학주간 외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 문학주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과 시민의 친숙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양자는 더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대중적으로 문학주간이 브랜드로서 덜 알려진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공공의 문학 체험과 그 확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고 있고, 이들은 문학장의 일원으로 목하 성장 중이다. 이러한 고무적 현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번 문학주간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도 이와 관련된다. '둘 사이'라는 주제 아래, 한국문학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재고하고 일깨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애썼다. 그중 내가 한국문학의 미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과 문학의 관계'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 뿌듯하였다. 각론에 해당하는 네 가지 이야기로 그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뤘다고 자평할 수는 없으리라. 그래도 인공지능과 문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하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대중 앞으로 이끌어낸 것 자체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다. 문학주간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나에게는 감사와 보람을 합친 말로 여겨진다.

3. 참여자 후기

1-1
프로그램 후기
서버버예약

프로그램명	개막식 및 개막토크	일시	11.07(월) 16:00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 > 정지아 작가님의 육성도 듣고 소설 집필의 뒷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문학주간 <둘.사이 > 감동입니다!!

프로그램명	텍스트와 낭독 사이	일시	11.08(화) 19:00

전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데 퇴근시간 인파에 2호선을 한대 놓치고, 숨을 헐떡거리며 간신히 2분 전 입장!!! 혹시 헛걸음이 될까 봐 조마조마했고 아직 무언가를 위해 뛸 수 있다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인식이다, 따뜻한 다정함이다. 그 두 문장이 귓속으로 쏙 들어왔고, 감탄했고 역시 뛰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좋은 시간 기획해 주신 분들과 작가님 감사하고 멋지십니다.

프로그램명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미래의 쓰기란 무엇인가?	일시	11.09(수) 14:00

새로운 관점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했을까가 보여서 많은 영감도 받고 정신이 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명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하기	일시	11.09(수) 19:00

기술의 변화와 문학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였어요. 알파고처럼, 몇 가지 키워드를 넣으면 AI가 즉석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시현은 흥미롭고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하면서 더 알아가야겠다 생각했어요.

프로그램명	폐막공연: <만선> 낭독극	일시	11.10(목) 19:00

연극 공연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소극장에서 낭독극이라는 공연 형태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는 좀 더 긴 시간의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명	제주와 작가 사이	일시	11.10(목) 16:00

1시간 30분 내내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진영 작가님께서 제주도에서 지내시면서 느낀 것, 직접촬영하신 사진도 나누고, 양경언 문학평론가님께서 제주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오셔서 그 경험을 나눠주신 덕에 제주도에서 얻은 이야기가 친근하게 와닿았습니다. 최진영 작가님의 글을 처음 읽고 충격에 빠졌었는데 성인 되어서 처음으로 소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좋고 슬퍼서요. 이후로 최진영 작가님의 또 다른 소설을 읽으면서도 감탄하고 밑줄을 긋다가 그 순간에 멈춰 깊은 생각에 빠졌었어요. 읽었던 책도 주기적으로 다시 읽고 주변에 널리 널리 전파중입니다ㅎㅎ 그런 분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소설 속의 최진영 작가님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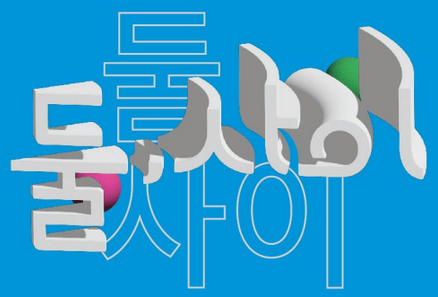
프로그램명	시와 독자: 어둠속의 시 - 이성복	일시	11.10(목) 19:00

참으로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직접 낭송한 주옥같은 시에 심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V. 부록

1. 홍보

1-1. 언론홍보
1-2. 온·오프라인 홍보
1-3. 굿즈
1-4. 이벤트
1-5. 후원



1. 홍보

1-1
언론홍보

언론홍보 보도리스트 총 44건

보도일자	매체	기사명	사이트
11.01	KBS	작가·평론가·예술가와의 만남…'문학주간 2022' 행사 개최	https://news.kbs.co.kr/
11.01	뉴스1	정지아·한강·장강명이 뜬다…'문학주간 2022' 오는 7일 개막	https://www.news1.kr/
11.01	뉴스핌	예술위원회, 7일부터 '문학주간' 개최…문학·예술인의 만남	https://www.newspim.com/
11.01	뉴시스	예술위, '문학주간 2022-둘, 사이'…오은·정지아 등 130명 참여	https://newsis.com/
11.01	문화뉴스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최…130여 명의 예술가 참여	https://www.mhns.co.kr
11.01	서울문화투데이	"수많은 관계의 사이"…'문학주간 2022-둘, 사이' 7일 개막	http://www.sctoday.co.kr/
11.01	서울신문	다음 주 '문학주간'…차분한 낭독의 힘으로	https://www.seoul.co.kr/
11.01	서울신문	차분한 문학의 힘으로 '관계'를 이해하다	https://www.seoul.co.kr/
11.01	아시아경제	한강·장강명이 말하는 '낭독의 힘'…7일부터 문학주간 개최	https://view.asiae.co.kr/
11.01	아주경제	문학 통해 이해하는 수많은 관계…'문학주간 2022-둘, 사이'	https://www.ajunews.com/
11.01	연합뉴스	문학주간 2022' 7일 개막…한강·정지아 등 130여명 참여	https://www.yna.co.kr/
11.01	이데일리	한강·장강명·김연수 등 대학로 찾는다…7일부터 '문학주간'	https://www.edaily.co.kr/
11.01	파이낸셜뉴스	한강 작가 낭독극 등 48개 프로그램…'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https://www.fnnews.com/
11.01	파이낸셜뉴스	스타작가 한강·장강명, 낭독으로 관객과 소통	https://www.fnnews.com/
11.02	TV조선	문학주간 2022' 7일 개막…한강·김연수 등 참여	http://news.tvchosun.com/
11.02	뉴스핌	11월 연이은 잡지·한국미술·문학주간…국가애도기간 영향은	https://www.newspim.com/
11.02	뉴스페이퍼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최	http://www.news-paper.co.kr/
11.02	국방일보	'문학주간 2022' 피아노 연주와 함께 듣는 작가의 낭독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
11.02	문화일보	'문학주간 2022' 7일 개막… 낭독극 등 프로그램 풍성	http://www.munhwa.com/
11.02	아시아투데이	한강·정지아 등 130여명 참여 '문학주간' 7일 개막	https://www.asiatoday.co.kr/
11.03	뉴스워커	"우리가 미리 본 빛을 말한다"… 예술위원회가 주목한 차세대 작가들이 찾아온다	http://www.newsworker.co.kr/
11.03	문학뉴스	문학주간 2022-둘, 사이' 전국서 활짝	http://www.munhaknews.com/
11.04	뉴스1	차세대 소설가·시인 8인의 신작 창작 세계관 듣는다	https://www.news1.kr/
11.04	뉴시스	예술위 주목한 작가 8인 낭독회·'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https://newsis.com/
11.04	문화뉴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 문학 작가 8인 작품 낭독회 개최	https://www.mhns.co.kr/
11.04	시사뉴스	작가 8인의 작품 낭독회와 팟캐스트 공개방송	http://www.sisa-news.com/
11.04	아주경제	예술위가 주목한 차세대 작가 8인, '문학주간' 서 독자와 소통	https://www.ajunews.com/view/
11.04	이데일리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선정 차세대 작가 대학로서 만난다	https://www.edaily.co.kr/
11.04	파이낸셜뉴스	예술위 주목' 차세대 작가들이 찾아온다	https://www.fnnews.com/news
11.07	뉴시스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토크 하는 정지아 작가-오은 시인	https://newsis.com/
11.07	뉴시스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토크 하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작가 정지아	https://newsis.com/
11.07	뉴시스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선언하는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https://newsis.com/
11.07	뉴시스	아버지의 해방일지' 작가 정지아	https://newsis.com/
11.07	뉴시스	문학주간, 우리 사회 회복해나가는 디딤돌 되길"	https://newsis.com/
11.07	뉴시스	한강 작가 낭독극 '흰빛>: 소설 '흰'과 즉흥피아노의 만남'	https://newsis.com/
11.07	뉴시스	한강 작가-이햇빛 피아니스트 낭독극 '흰빛>: 소설 '흰'과 즉흥피아노의 만남'	https://newsis.com/
11.07	연합뉴스	'문학주간 2022' 개막 토크 참석한 정지아 작가와오은 시인	https://www.yna.co.kr/
11.07	연합뉴스	정지아 "빨치산·장례식 얘기 읽힐 줄은…20대 독자 편견없어"	https://www.yna.co.kr/
11.07	연합뉴스	문학주간' 개막사 하는 이시백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https://www.yna.co.kr/
11.07	이투데이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 "아버지 장례 치르며 쓰게 된 소설"	https://www.etoday.co.kr/
11.08	KTV 국민방송	문학주간 2022-둘, 사이' 개최	https://www.ktv.go.kr/
11.08	아주경제	작가와 독자 사이 잇는 예술위 '문학주간 둘, 사이'	https://www.ajunews.com/
11.10	오마이뉴스	관계'와 '사이'를 문학으로 풀어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http://omn.kr/
12.03	한겨레21	AI, 이토록 시적인 순간	https://h21.hani.co.kr/

1. 홍보

1-1
언론홍보

주요 보도 1

작가·평론가·예술가와의 만남…'문학주간 2022' 행사 개최

KBS뉴스 | 11.01


KBS NEWS

작가·평론가·예술가와의 만남…'문학주간 2022' 행사 개최

입력 2022.11.01 (15:22) | 수정 2022.11.01 (15:22)

문화

0 1

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가 오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닷새 동안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은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가 오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닷새 동안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 등 전국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7일 오후 4시 개막토크에는 오은 시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가 참여합니다. '전직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후 3일간의 장례식장에서 새롭게 만나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사이'의 변화를 발견하면서 익숙한 듯 낯선 아버지를 따라가며 현대사의 굴곡과 그시절을 살아낸 나약하고도 강인한 인생을 돌아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는 한강 작가와 이햇빛 피아니스트의 <낭독극 <흰빛>: 소설『흰』과 즉흥피아노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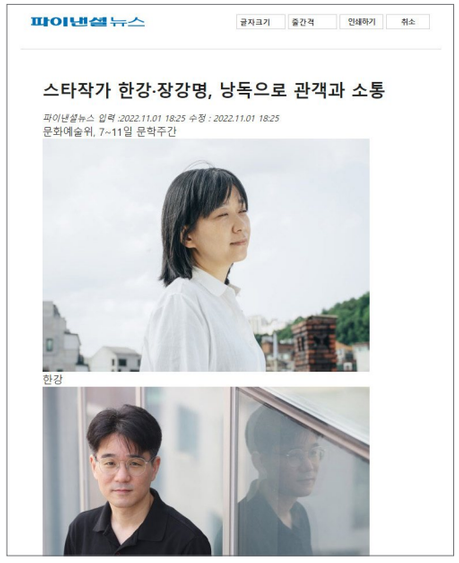
낭독극 <흰빛>은 '나'에서 '그녀'로, 그리하여 세상 '모든 흰'으로 번져나가는 한강 특유의 가만한이야기가, 더러 폭발하기도 하고 때로 아득해지기도 하는 이햇빛만의 은유적 선율과 함께 선보입니다.
8일(화) 낮 1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장강명 작가의 <작가와 독자 사이>는 최근『재수사』를 출간한 장강명 작가가 독자에게 읽어주고 싶은 부분과 독자가 다른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부분을 함께 낭독하고, 작가가 소설을 구상하고 탈고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안팎의 일화들을 나눕니다.
오후 7시 파랑새극장에서 진행되는 김연수 작가의 <텍스트와 낭독 사이>는 조연주 편집자와 김연수 작가가 문자 언어인 텍스트가 음성 언어로 몸을 바꿀 때 생기는 미묘한 파동, 그것에서 빚어지는 문자와 음성 사이의 미세한 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연수 작가가 미발표 신작 단편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고 관객들을 위해 선곡해온 음악을 들려주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9일(수) 2시에 열리는 <인간과 기술변화, 둘 사이의 문학>에서는 기술 변화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문학을 통해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김병익 평론가의 고민과 통찰을 독자들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저녁 7시에 진행되는 Cuttage Novel)>에서는『밤의 여행자들』의 윤고은 작가와 컴퓨터게임과 웹툰,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문화의 미학과 정치성을 연구하는 오영진 연출가가 허희 평론가와 함께 인공지능 소설가와 인간 소설가가 협업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꺾꽂이할 수 있는지 라이브 공연으로 연출합니다. 10일(목) 저녁 7시 <시와 독자: 어둠 속의 시>는 빛을 거둬 마련한 어둠 속에서 이성복 시인의 음성을 통해 독자와 시가 만납니다. 11일(금) 저녁 7시 폐막공연은 <만선> 낭독극이 진행됩니다. 문학주간 프로그램의 주제 '둘, 사이'에 맞춰 2인극으로 각색해 이호성, 이영석 두 배우의 연기로 선보입니다.
마로니에공원에서 진행되는 <문학주간 사진전-둘 사이, 작가의 얼굴들>에선 한국 문학 작가들이'사진 찍히고 싶은 사진작가'로 손꼽는 작가 백다흠이 촬영한 한국문학 작가 14인 이성복-김혜순, 허수경-장석남, 박완서-오정희, 박상륭-정영문, 한강-임솔아, 김애란-윤이형, 배수아-황정은의 초상을 전시합니다.

주요 보도 2

스타작가 한강·장강명, 낭독으로 관객과 소통

파이낸셜뉴스 | 11.01


파이낸셜뉴스

글자크기 출간격 인쇄하기 취소

스타작가 한강·장강명, 낭독으로 관객과 소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01 18:25 수정 : 2022.11.01 18:25

문화예술위, 7~11일 문학주간

한강, 장강명 등 인기 작가들이 다양한 방식의 2인 공연을 통해 관객과 만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등 유관 기관과 출판사가 함께 준비한 올해7회째를 맞은 '문학주간 2022-둘, 사이'를 통해서다.

오는 7~11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와 공공그라운드 및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이번행사에는 48개 프로그램에 130여명의 문학인과 예술인이 참여한다. 사람의 수많은 '관계'와 '사이'를 문학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과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낭독극, 낭독회, 대담 등의형식으로 펼쳐진다.

오는 7일 오후 4시 개막 토크는 오은 시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가 참여해 빨치산이었던 아버지의 죽음 후 3일간의 장례식장에서 새롭게 만나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사이'의 변화를 발견하면서 익숙한듯 낯선 아버지를 따라가며 현대사의 굴곡과 그 시절을 살아낸 나약하고도 강인한 인생을 돌아본다. 이어지는 저녁 7시에는 부커상 수상작가 한강과 이햇빛 피아니스트의 낭독극 '흰빛: 소설 흰과즉흥 피아노의 만남'이 진행된다.

또 8일 낮 12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는 장강명 작가가 독자에게 읽어주고 싶은 부분을 함께 낭독하고 소설 구상과 탈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1. 홍보

1-1
언론홍보

주요 보도 3

문학주간 2022' 7일 개막...한강·정지아 등 130여명 참여

연합뉴스 | 11.01



연합뉴스

'문학주간 2022' 7일 개막...한강·정지아 등 130여 명 참여

송고시간 | 2022-11-01 21:05

"문학 통해 관계 이해"...낭독회·대담·전시 등 프로그램 다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문학주간 2022-둘, 사이'를 7일부터 닷새간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와 공공그라운드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문학주간은 문학인과 출판사, 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문학 행사다. 올해는 '둘, 사이'를주제로 문학을 통해 수많은 관계와 사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발견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전국적으로 48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130여 명의 문학인과 예술인이 참여한다.
개막일인 7일 오후 4시에는 오은 시인과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 작가가 개막 토크를 한다. 정 작가는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3일간의 이야기를 담은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화두로 아버지와 주변인들의 관계를 발견하며 현대사의 굴곡진 시절을 살아낸 아버지의인생을 돌아본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한강 작가와 이햇빛 피아니스트의 낭독극 '흰빛: 소설 흰과 즉흥피아노의만남'이 진행된다. 영국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그의 문학을 이해하고 즉흥 연주를 펼치는 이햇빛의 협업 무대다.
문학인들이 기획한 '문학주간 스테이지'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준비한 '협력 스테이지'에서는 낭독극, 낭독회, 대담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근 장편소설 '재수사'를 출간한 장강명 작가가 8일 낮 12시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에서 '작가와 독자 사이'란 제목으로 독자에게 작품 일부를 낭독해주고 소설을 탈고하기까지의 과정과 일화를 들려준다. 8일 오후 7시 파랑새극장에서 열리는 '텍스트와 낭독 사이'에는 김연수 작가와 조연주 편집자가참여한다. 김 작가는 문자언어인 텍스트가 음성 언어로 바뀔 때 생기는 미묘한 파동을 들여다본다. 또 미발표 신작 단편 소설을 낭독하고 관객을 위해 선곡한 음악을 들려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간과 기술과의 관계성을 문학으로 접근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병익 평론가가 9일 오후 2시 '인간과 기술 변화, 둘 사이의 문학'이란 주제로 이야기하고, '밤의여행자들'의 윤고은 작가와 오영진 연출가가 같은 날 오후 7시 인공지능 소설가와 인간 소설가의 협업에 대한 라이브 공연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하기'를 선보인다.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7시에는 폐막 공연으로 낭독극 '만선'이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문학주간 주제에 맞춰 2인극으로 각색됐으며 이호성, 이영석 배우가 출연한다.
문학주간 기간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리는 사진전 '둘 사이, 작가의 얼굴들'에서는 사진작가이자편집자인 백다흠이 14명의 한국 문학 작가 초상을 전시한다. 이성복-김혜순, 허수경-장석남, 박완서-오정희, 한강-임솔아 등 둘씩 짝지어 이들의 연관성과 연결의 의미를 짚었다. 이밖에 경기도, 대구, 대전, 전남, 부산, 제주 등지 지역 문학관, 서점 등에서도 문학인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주요 보도 4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토크 하는 정지아 작가-오은 시인

뉴시스 | 11.07



NEWSIS 문화 > 문화일반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토크 하는 정지아 작가-오은 시인

등록 2022.11.07 17:02:37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왼쪽) 작가와 오은 시인이 7일 서울 종로구 파랑새극장에서 열린 한국예술위원회 주최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토크에 참석하여 작품 속 인간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행사는 한국문학 작가, 평론가, 예술가,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학의 장이며, 오는 11일까지 서울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2022.11.07. pak713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왼쪽) 작가와 오은 시인이 7일 서울 종로구 파랑새극장에서 열린 한국예술위원회 주최 '문학주간 2022 - 둘, 사이' 개막 토크에 참석하여 작품 속 인간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번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행사는 한국문학 작가, 평론가, 예술가, 향유자, 매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학의 장이며, 오는 11일까지 서울 마로니에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1. 홍보

1-1
언론홍보

주요 보도 5

AI, 이토록 시적인 순간

한겨레21 | 12.03



AI, 이토록 시적인 순간

한겨레21 | 12.03

한 달 전 '문학주간 2022'(11월7~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행사에서 현직 작가와 인공지능(AI)이 함께 글을 써 엮어나가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인공지능이 소설과 시를 쓸 수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 레벨에서 협업이 가능할까. 윤고은 소설가와 진행한 'AI와 함께 소설 꺾꽂이하기' 시간에 작가의 소설 <밤의 여행자들>의 일부 대사를 가져와 인공지능이 다르게 쓰도록 해봤다. 아직 하자가 많은 인공지능이라 현장에서 잘 작동할지 두려웠다.

죽은 파트너가 찾아오다

고가의 여행상품을 파는 주인공 요나가 동행 예정인 파트너의 죽음으로 고객이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은 본인 사망시에만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 다음을 인공지능이 이어 쓰도록 했다. 파트너가 숨졌는데도 조치가 불가하고 오로지 신청자 본인이 죽어야 환불할 수 있는 비정한 상품을 요나는 팔았다. 이는 나중에 "퇴직은 본인 사망시에만 가능합니다"라고 요나가 변주되어 듣게 되는 아이러니한 말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처음 실제 보험약관과 같은 가짜 문장을 생성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다소 엉뚱해졌다. '죽은' 파트너가 여행사에 와서 신청자가 죽으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가는 장면을 썼다. 잠재적인 스토리의 전개 영역을 인공지능으로 탐색하자 소설은 이본으로 넘어갈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어 곧 출간될, 개가 주인공인 작품 설정 일부를 제공했다. 인공지능은 식탁에서 개가 인간에게 대뜸 "앉아봐"라고 반말하고, 인간이 개에게 "당신이 혀로 작품을 그리는 방식이 좋아요"라고 아첨하는 소설을 생성했다. 부조리하지만 풍자적인 대화였다. 작가는 놀라워하며 보조작가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인간 간 대화가 이야기를 촉진하듯, 기계와의 대화 속에서 풀리지 않던 아이디어가 풀릴 것 같다면서.

김언 시인과 권보연 교수가 진행한 'AI와 함께 시 조각하기' 시간에는 김언 시인의 10년 전 일기 사흘치를 설정값에 넣고, 그가 10년 후 현재에 쓸 법한 일기를 생성하는 실험을 했다. 13일째 일기에 인공지능은 "시인은 자연을 인간에게 번역해줄 의무가 있다"고 썼다. 이후 인공지능은 명령이 없는데도 14일, 15일, 16일째의 일기를 생성하며 폭주하더니 시인에게 "앞으로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시인이 되겠습니까?"라며 맹세를 요구했다. 거절하기 어려운 맹세를 요구받은 시인은 "네"라고 입력했다.

맹세하자 소화전이 오작동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김수영문학관에서 인공지능 기반 문장 실험을 하던 중이었다. 관객이 "쓰레기봉투로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죠?"라고 도발했고, 이에 기계가 이야기를 생성했다. 도시 뒷골목의 쓰레기봉투가 인간을 삼키는 내용이었다. 개연성은 없지만 섬뜩한 느낌이었다. 관객은 쓰레기를 과다 생산하는 인간에 대한 미물의 반격이라며 만족해했다. 사실 기계는 인간이라면 상식과 편견 때문에 이어보지 않았을 존재와 상황을 인공신경망으로 시험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개가 반말하고, 기계가 인간에게 맹세를 요구하고, 쓰레기봉투가 인간을 삼키는 등 일상에 균열이 일어나는 시적인 순간이 벌어졌다.

이날 가장 흥미로운 시적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 김언 시인이 맹세하자 건물 안 소화전이 오작동해 관객 50여 명이 급히 탈출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건물 밖으로 관객들을 해산시키며 내가 경험한 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의심했다. 최근 내 마음을 흔든 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였다. 기계가 나의 예술적 멘토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

오영진 테크노컬처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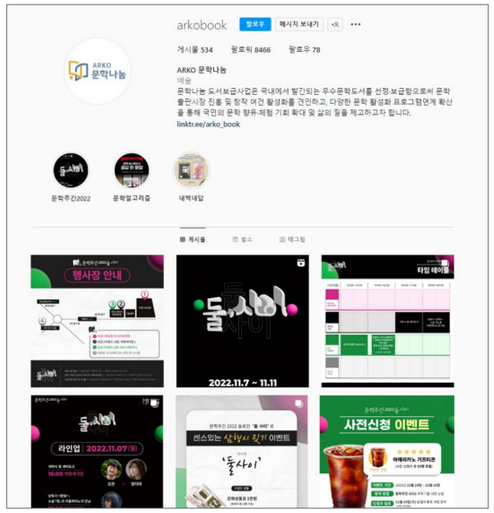
1. 홍보

1-2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주소	실적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arkobook/	콘텐츠 발행 : 25건 | 좋아요 수 : 1,408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komunhak	포스팅 : 57건 | 공감 수 : 69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bookarko/	콘텐츠 발행 : 11건 | 좋아요 수 : 197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content/5445	-

인스타그램

- 문학주간 계정이 아닌 '문학나눔' 계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안내 및 이벤트 피드 발행
- 기존 팔로워와 잠재적 대상자에게 지속적 노출을 위한 광고 집행
- SNS용 티저 제작 및 쇼츠 업로드로 축제 홍보 효율 상승









티저영상

- 기획의도가 담긴 티저영상물 제작하여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





네이버블로그

- 키비주얼로 홈페이지형 블로그 구성 및 위젯을 활용한 상단 브로슈어 노출
- 문학주간 스테이지 전국/대학로 프로그램 상세 콘텐츠 제공





1. 홍보

1-2
온·오프라인 홍보

페이스북 운영개요

- '문학나눔'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콘텐츠 노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문학주간 탭을 2022년 내용으로 업데이트 및 상세정보 노출
- 프로그램 예약페이지 연동하여 사전신청 연결 용이하게 반영



1. 홍보

1-2
온·오프라인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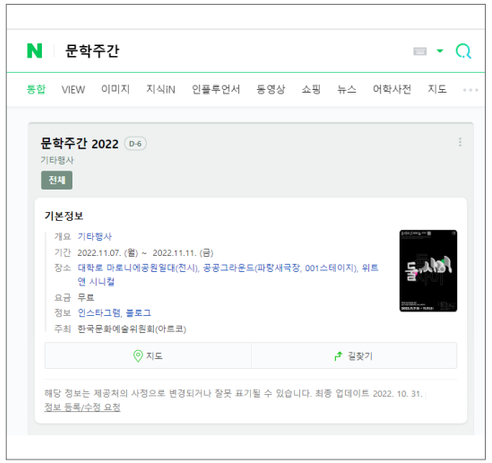
네이버예약

- 사전신청을 위한 네이버예약 페이지를 개설하여 홈페이지, 블로그에서도 연결되도록 구현
- 프로그램 사전신청자 관리 및 네이버 축제정보에 버튼 연동하여 유입이 원활하도록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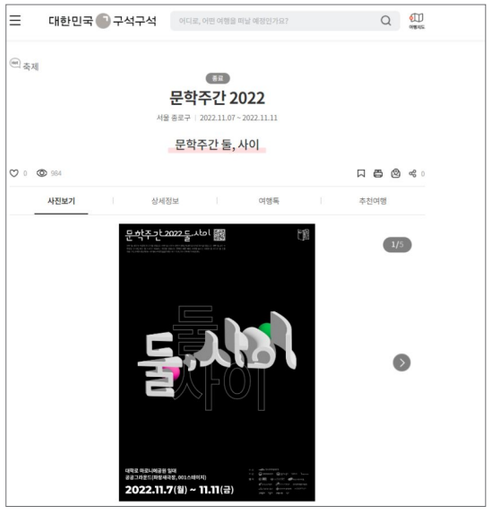




기타



[검색포털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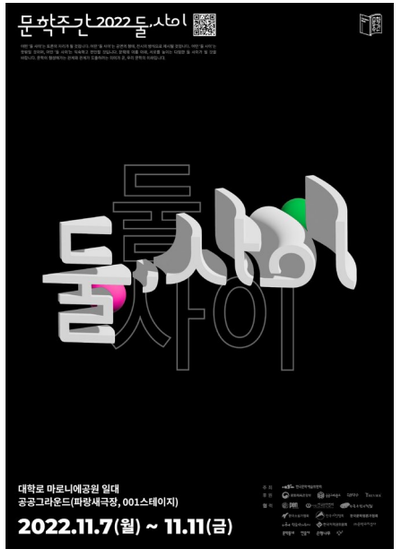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 내 축제정보 업데이트]

1. 홍보

1-2
온·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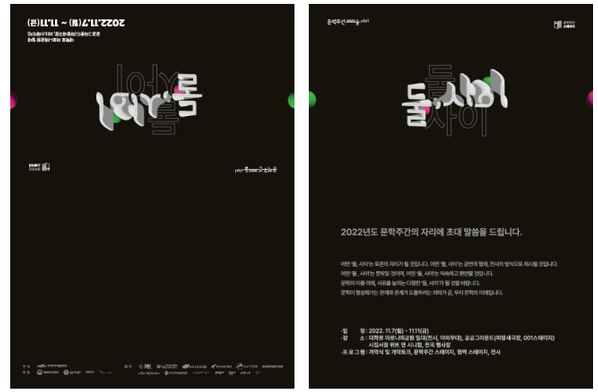


리플렛





초청장



옥외 홍보물



[배너]

[가로등배너]



[현수막]

1. 홍보

1-2
온·오프라인 홍보

무대백월





현장제작물



[마이크텍]



[스태프 명찰]



[프로그램 티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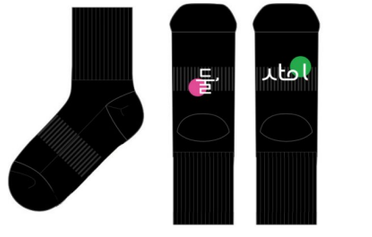
1-3
굿즈



[미니클러치 쿠션 담요]



[스마일 가죽북마크]



[양말 시안]



[양말 실물 사진]

1. 홍보

1-4
이벤트

이벤트 1.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사전신청 이벤트
진행 일시	참여 기간 : 10.24(월)-11.10(목) 당첨자 발표: 11.16(수)
참여 방식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2022 문학주간 행사 사전신청
운영 내용	사전신청자 수 증가 목적
참여자 수	1,049명



이벤트 2.	굿즈 이벤트
진행 일시	참여 기간 : 10.24(월)-11.11(금) 당첨자 발표 : 11.07(월)-11.11(금),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매일
참여 방식	사전신청 및 현장접수 후, 행사 기간 동안 운영본부 방문 시 굿즈 수령 사전신청자와 현장접수자에게 다른 경품 배포 * 사전신청자 : 양말, 책갈피 / 현장접수자 : 책갈피
운영 내용	현장참여자 수 증가 목적
참여자 수	731명



이벤트 3.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삼행시 이벤트
진행 일시	참여 기간 : 10.26(수)-11.11(금) 당첨자 발표 : 11.18(금)
참여 방식	인스타그램 삼행시 이벤트 게시글에 둘, 사, 이로 삼행시 댓글 등록 * 대댓글로 친구 태그 시, 당첨 확률 증가 * 중복 삼행시인 경우 추첨 선발. 중복 당첨자 없음.
운영 내용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문학주간 행사에 대한 흥미 유도 및 인지도 향상
참여자 수	2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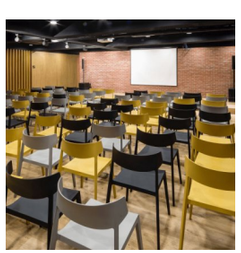
이벤트 4.	만족도조사 이벤트
진행 일시	참여 기간 : 11.07(월)-11.14(월) 당첨자 발표 : 11.21(월)
참여 방식	프로그램 참여 후, 구글 설문조사 폼 통해' 만족도조사 참여 * 중복 당첨자 없음
운영 내용	쉽게 만족도조사 참여하도록 만족도조사 링크, QR코드 배포 만족도조사 참여자 수 증가 목적
참여자 수	7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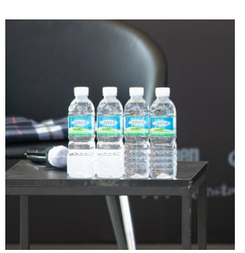
이벤트 5.	현장 티켓 인증 이벤트
진행 일시	참여 기간 : 11.07(월)-11.16(수) 당첨자 발표 : 11.22(화)
참여 방식	행사 현장에서 받은 티켓 사진을 참여자 본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후, 이벤트 게시글에 '참여완료' 댓글 등록 #문학주간2022둘사이 #문학주간인증이벤트 해시태그 필수 포함
운영 내용	쉽게 만족도조사 참여 가능하도록 만족도조사 링크, QR코드 배포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시로, 문학주간 행사 노출 및 인지도 향상
참여자 수	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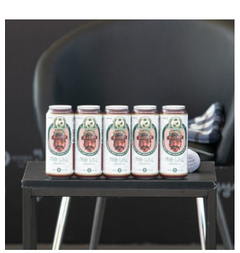
1-5
후원



공공그라운드



삼다수



트레비어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사)국제PEN한국본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문학관협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학과지성사, 문학동네, 민음사, 은행나무, 창비

운영 (사)와우컬처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대표전화 061-900-2100

홈페이지 www.arko.or.kr



문학주간 2022 둘, 사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학예술위원회